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요즘 대세 태양열 발전 꼼꼼히 따져보기



임대, 돈 안들이고 전기요금 절약
구입 시에도 솔라 론 대출 가능
임대 또는 구입 중 맞는 것 선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자택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
는 태양열 발전이 대세다. 태양열 집열
판 설치를 권장하는 각종 광고가 난무
하고 있는 요즘, 이 선택이 약속한 혜택
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도 사실이다.

태양열 자가 발전은 실제적으로 금
전적 부담 없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까. 보스톤코리아는 취재

로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주택 소유주들은 전화 한 통으로
태양열 발전 회사를 선정, 설치할 수 있
으며 비록 설치 전 실사 등의 과정을 거
치지만 리스의 경우 개인의 돈을 한 푼
도 들이지 않고 설치할 수도 있다.

최근 태양열 발전기를 임대(lease)
로 2층 지붕에 설치한 에버렛 거주 한
인 J씨는 요즘 스마트 폰으로 하루당
얼마의 전기를 발전시켰는지 점검하는
재미에 쏙 빠져있다. 햇빛이 좋은 날에
는 하룻동안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감당하고 시에 전원을 공급할 정도다.
월별 전력 생산량도 체크할 수 있으며
한 달에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전기회
사에서 끌어다 쓴 전력량도 알 수 있다

20년 임대로 계약한 J씨는 “전반적
으로 약과거 전기요금의 30-40%의 요
금만 내고 있다” 고 밝혔다. “대부분

의 태양열 발전 회사들의 가격은 큰 차
이가 없었다” 는 그는 “그 중에 하나
를 골라 설치를 의뢰했으며 주머니에
서 한 푼도 나가지 않았다” 고 밝혔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의 조사
(seia.org/research-resources)에 따르
면 지난 2014년 현재 매사추세츠 주내
태양열 자가 발전 주택은 50,000 가구를
상회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태양열자
가 발전이 많은 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세인 태양열 발전은 환경
친화적이고 금전절약 등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태
양열 집열판 설치에 대해 알아보자.

태양열 자가 발전 설치 방법

매사추세츠 주의 태양열 발전회사로
는 벨링턴에 있는 REVOLUSUN 과
우번에 있는 The Boston Solar, 서머
빌에 있는 SunBug Solar 등이 있다.

▶▶2면으로 계속

61세 한국 경찰관 자전거로 미국횡단

▶▶ 관련 기사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각·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law.com



From \$879
ONLY 1 STOP

보스톤-인천 비수기 왕복항공권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879은 아시아나항공(뉴욕경유/국내선구간 포함) 요금입니다.
해당 가격은 11월 30일 이전 또는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되며, 동시에 발권조건
(출발 56일 이전 및 2015년 8월 7일까지 발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항공권 금액은 여행일정, 이용항공사, 예약상황, 티켓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받
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g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665.1587
juno@se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태양열 발전 설비 임대 또는 구입, 이렇게

▶▶1면에 이어서

태양열 발전 산업회사 REVOLUSUN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팀 포스트는 “매사추세츠 빅토리아 주택(3-4 Bedroom) 네 명의 가족 경우 총 장비와 절차를 합한 비용은 평균 35,000 달러이다” 라고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 우선 위의 회사 중 한 곳을 접촉, 전기요금 통지서를 보내면 회사에서 점검이 나온다. 점검 후 프로젝트 매니저가 태양열 발전을 신청자의 주택에 맞게 구성(construct)하고 엔지니어(기사)들이 설계도면을 만든다. 회사에서는 설계 도면을 타운 및 시에 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시작한다. 완벽하게 설치가 될 때까지는 총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지붕 위에 설치되는 태양열 집열판은 조용하며 쉽게 유지할 수 있다. 팀 씨는 “태양열 집열판의 크기는 각 주택 지붕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고 밝혔고 이어서 “주택에 지붕이나 평지가 없을 경우에는 ‘커뮤니티 솔라’ 를 이용해 평지에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태양열 집열판은 30년 팀 씨는 “보통 매사추세츠 주주

택들의 경우 태양열 에너지를 설치한 후 전기요금이 대폭 감소했다.” 며 이어서 “하지만 태양열 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산정을 어렵다고 생각해 실질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아쉬워했다.

태양 발전기 구입이나 임대나

팀 씨는 태양열 발전(설치) 요금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태양열 발전 설치는 임대와 구매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진다고 밝혔다.

태양열 발전을 임대할 경우 태양열 집열판을 소유하는 회사(SunEdison)에 저렴한 전기요금을 지급한다. 임대 계약은 계약금이나 따로 수수료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매달 지정된 전기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팀 씨는 “태양열 발전을 임대할 경우(REVOLUSUN)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30% 에서 50%까지 절약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보스턴 글로브는 지난 25일 The Boston Solar 를 인해 10%에서 20%의 절약이 된다고 밝혔다.

팀 씨에 따르면 REVOLUSUN의 임대계약은 20년으로 계약 후 6년

이 지나면 태양열 발전을 구매 할 수 있다.

태양열 발전 임대에서 가장 큰 단점은 계약 도중 집을 팔게 되는 경우다. 팀은 “집주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을 양도 하거나 남은 계약분을 지급한 후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고 설명했다. 임대 중 남은 계약금을 지급하여 구입을 한 경우에는 태양열 회사들은 이사 가는 집에 다시 발전 설비를 설치해준다.

태양열 발전 임대의 장점은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서 무료로 수리해주고 청소해주는 점이다.

태양열 발전을 구입할 경우 연방 세금 크레딧 FITC(Federal Income Tax Credit)로 30%의 혜택 프로그램이 2017년에 만료되기에 구입을 결정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17년 이후는 연방세금 크레딧이 10%로 감소한다.

2017년 이전에 설치하는 경우 연방소득에 이어서 매사추세츠 주 세금 크레딧 SITC(State Income Tax Credit)를 \$1,0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혜택프로그램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팀 씨가 위에서 언급한 매사



추세츠 빅토리아 주택(3-4 Bedroom)의 평균 구매 값 \$35,000 중 \$11,500까지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현금이 없을 경우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보통 태양열 발전 대출 이자율은 본인의 크레딧과 대출 기간에 따라 2.99%에서 6.49%에서 결정된다.

태양열 발전설비를 개인 소유하게 되면 이를 통해 이익창출도 가능하다. 한 가지는 전기를 사용한 후 남아있는 전기에 지역 전기회사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때 판매하는 전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넷 미터링(Net Metering)이라 한다.

또 한 가지는 에스렉(SREC:Solar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이라 불리는 보증서를 판매하는 것으로 훌륭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미국내 일부 주정부들은 태양열 전기를 생산해 환경에 공헌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1천 킬로와트 생산할

때마다 1개의 에스렉을 주게 된다. 이 에스렉을 받기 위해 태양열 발전을 구매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에스렉은 에스렉 마켓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 계약으로 팔수 있으며 단기적인 시세는 오거나 웹 페이지(sretrad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계약을 통해 에스렉을 판매하는 것이 좋다.

태양열 발전설비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단점은 유지보수를 개인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태양열 집열판의 관리는 호스를 통해 청소하면서 유지할 수 있지만 집열판의 파손 등은 태양에너지 회사에 연락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태양열발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revolusun.com)에서 가능하며 781-270-6555에 연락해 바로 설치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데릭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스레딩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론 펌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61세 한국 경찰관, 은퇴 기념 자전거로 미국횡단

▶▶1면에 이어서

쌀 배달하며 배운 자전거

인생의 꿈 키워

대장정 속 따뜻한 응원에 '감동'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61세의 나이로 정년퇴직한 마포 경찰관이 꿈에 그리던 자전거 미국횡단에 나섰다. 홀로 나선 6천 킬로미터의 외로운 대장정이지만 도로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온정을 느끼는 여행이 되었다는데.

지난 23일, 보스톤에 도착한 이용신(61) 씨는 가장 먼저 울스틴의 하버드 애비뉴를 찾았다. 일부러 남들이 가지 않은 루트를 선택해 인적이 드문 사막이나 산으로 다녔다는 이 씨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람이 그리워 코리아타운을 첫 번째로 찾게 되었다” 고 전했다.

이용신 씨는 약 5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자전거를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투박한 자전거는 미주 횡단에 나선 지난 두 달의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했다.

바퀴살은 몇 번이나 교체했는지 종류가 저마다 달랐고 미국 오기 전 새

로 맞췄다는 유니폼은 엉덩이 부분만 헤진 상태로 자전거 한 쪽에 걸려 있었다. 신고 다니는 물건까지 합하면 50킬로그램이 훌쩍 넘는 자전거는 이 씨의 교통수단이자 유일한 벗이다.

어릴 적 쌀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을 도와 쌀을 배달하러 다니면서 자전거를 배웠다는 이용신 씨는 경찰관이 된 후에도 자전거 타는 취미를 버리지 않았다. 이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 각종 대회에 참가하면서도 늘 ‘40년 경찰직을 마치면 은퇴 기념으로 자전거 미국횡단을 도전하겠다’ 는 꿈을 키워온 것이다.

이 씨는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지난 5월 20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시속 15킬로미터의 속도로 하루에 약 100킬로미터씩 달렸다. 밤이 되면 이 씨는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먹기도 했으며 숙박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집에 무작정 찾아가 마당에 텐트를 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 씨는 “운 좋게도 가는 곳마다 (나를) 응원해주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는 이웃이 있었다” 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가던 나를 위해 한 미국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에, 그것도 100킬로



(좌) 울스톤을 찾은 이용신 씨,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힌 대형 미국지도를 들고 있다 (우측 상단) 피크닉 테이블 위에 하룻밤 머물 텐트를 마련했다 (우측 하단) 뒷바퀴는 LA 태평양에, 앞바퀴는 롱아일랜드 주 대서양에 담긴 이용신 씨



미터나 떨어진 바이크 센터까지 라이드를 해줬다” 고 회상하며 놀라움을 표했다.

그 외에도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해 준 사람은 물론 낯선 한국인을 위해 자기 방을 내주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준 미국인도 있었다고.

“긴 여행 속에 미국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는 이 씨는 “영어

가 유창하지 않아서 (만났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인터뷰 후 자전거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자 지나가는 미국인들이 이 씨를 관심있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유난히 큰 관심을 보이던 한 행인은 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엄지를 척 내밀며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

다. “그는 영웅이다(He is a hero)” 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용신 씨는 오는 8월 15일 워싱턴 디씨에서 2달 반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다. “코리아타운에 온 김에 맛있는 한국밥을 한 끼 먹고 가야겠다” 는 이용신 씨는 또 한 번 다음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July 6 - July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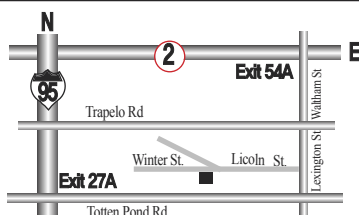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암살' 무료티켓 이벤트 당첨자 발표

참여 독자 전원에게 평일 티켓 2매 교환권 증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암살' 상영관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무료 티켓 이벤트에 참가한 독자 전원에게 교환권이 증정된다.

지난 23일부터 7일간 실시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 이벤트에는 총 23명의 독자가 참여했으며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이 중 기발하거나 재미있는 10명의 댓글을 선정했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독자 전원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하면 된다.

픽업은 8월 3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보스톤코리아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다.

무료 티켓 교환권은 해당 상영관 고객 서비스 창구에서 평일 티켓 2장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한 날짜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다.

'암살' 은 오는 7일 리걸 시네마 펜웨이 13와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 총 두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암살> 이벤트 당첨 댓글

장장장이 오달수요, 저랑 닮았어...하, 사...	전: 진한연기의 여운이 강한 배우 응: 응님이 최고예요!!!
joshualee 당연히 이정재 씨죠! :) 세월이 흘러도 아니 흐를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이정재님! ! 남자가 봐도 멋진 정재형!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 우월한 기력까지 하나 하나 부러운 것이 없습니대! 부러우면 진다 는데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ㅎㅎ 기대됩니다!!	peaceful11 이정재 아저씨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았고...내가 이정재님처럼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서, 오빠 화이팅 :)
spryoung 이정재 씨가 좋습니다. 카리스마도 멋있지만 때로는 백치미도 재미있습니다. 보스톤에 시사회를 하러 미국에 온 정재님, 뉴욕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받습니다.	남자유학생 전지현 배우가 제일 좋습니다. 밑에 분들처럼 뭐 어 네 저 네 선행시 쓰고 애쓰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간단히 애가하면 저는 남자로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
심사관: when is your birthday? (신기한 목소리로) 정재: March 15 (가침없이) 심사관: Which year? 정재: Every year (더 크게)	몽글이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 국제시장 / 해적 / 변호인 / 7번방의 선물 / 도둑들 / 공모자들 / 방자전 / 박쥐 / 그림자 살인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 괴물 / 친절한 남자씨 / 주먹이 운다 / 마파도 / 올드보이...
boston_love 저는 하정우 씨요 왜냐하면 제가 하다 망한 고기집 이름이 하정우(夏廷宇)예요. 이거라도 건져야죠...제발...	우아.. 오달수 씨가 나오는 영화 많이도 봤네요^^ 오달수 씨는 악역의 감초처럼 너무 재미있어요~ 암살도 꼭 보고 싶어요!
bbshushu1205 조진웅 씨 좋아합니다. 주연급 조연으로서 출연하는 작품마다 선 굵은 연기로 존재감이 확실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씬스틸러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이요^^ 이번 영화에서도 어떻게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기대가 되네요 꼭 가서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행시로 응원하겠습니다^^	하와이피스트 하정우 아저씨. 이번 영화가 하정우 아저씨 인생영화라고 하던데ㅎ 이번 작품에서는 얼마나 극중에 대입을 하고 입을 활치 기대되요!! 보는 영화, 보는 작품마다 기대를 버리지 않는 하정우 아저씨 응원해요 좋아요!!
조: 조진웅은 귀여움과 카리스마가 동시에 있다.	보람찬하루일출 살인 하연 이정재지~ 조카도 죽었잖아 관상에서 다죽인 다 ㅋㅋ

400만 관객몰이 <암살> 보스톤 추가 개봉

AMC 보스톤 커먼서 상영 확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8월 7일 보스톤 개봉을 앞둔 '암살' 이 AMC로우스 보스톤 커먼 19상영관에서 추가 개봉한다.

보스톤에서 개봉했던 한국영화 중 두 개의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암살' 이 최초다. 이로써 한인들은 리걸 시네마스 펜웨이 13과 AMC로우스 보스톤 커먼 19, 두 개의 극장에서 '암살' 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주연의 '암살' 은 한국에서 오프닝 스코어 47만을 기록해 일찍이 흥행 조짐을 보이며 개봉 7일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미주에서는 'Assassination' 이라는 타이틀로 30여개 스크린에서 오는 7일 동시 개봉을 앞두고 있다.

개봉일정

일시: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장소: 리걸 시네마 펜웨이 13(201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 19(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C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원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버클리 교수진 지휘하는 한인 유학생 작곡가

빅밴드 레코딩 위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버클리 음대 출신의 보컬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하는 이지혜 씨가 ‘특별한’ 재즈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으며 이번 빅밴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마련 캠페인에 나섰다.

이 씨의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지휘하는 빅밴드의 구성원 대부분이 버클리 교수진 또는 보스톤의 최고의 음악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전설의 트럼펫 연주자이면서 현재 버클리 재즈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레그 홉킨스(Greg Hopkins) 교수는 이 씨의 음악을 가까이서 지켜봐왔고 특별히 그녀의 프로젝트를 위해 본인이 몸담고 있는 밴드를 직접 섭외했다. 실력과 연륜을 동시에 갖춘 연주자 20명으로 구성된 빅밴드가 그녀가 작곡한 곡을, 그녀의 지휘에 따라 연주하게 되는 것이다.

“저의 음악을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시는 교수님들이 빅밴드의 연주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는 이 씨는 “학생

으로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 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년간 작곡한 재즈 오케스트라 곡 7개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 중 그녀가 보컬리스트로서 직접 참여하는 곡도 3곡이나 된다. 지휘자가 보컬리스트로 참여하는 것도 이례적인데다 젊은 한인 유학생이 이런 기회를 얻는다는 것 또한 흔치 않다.

이처럼 버클리가 주목하는 이지혜 씨의 빅밴드 프로젝트 곡 중에서 그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곡은 ‘세월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작곡했는데, 도저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쓰지 못했다” 는 이 씨는 당시의 혼란과 함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음악에 담아냈다. 이어 “보스톤 최고의 음악가들이 한 마음으로 연주하는 ‘세월호’ 는 기대할만하다” 고

한국에서 10여년간 입시생들의 보컬 레슨을 지도하며 ‘지오’ 라는 이름으로 자작곡 음반을 내는 등 음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던 이 씨는 4년 전부터 버클리에서 재즈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유학 생활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더욱 도전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뿌듯하다” 며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빅밴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믿음이 스스로에게 있다” 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늘 9월 레코딩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는 이 씨는 20명의 연주자와 함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마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씨는 18,000 달러의 예산을 목표로 펀드레이징을 시작했으며 현재 총 금액의 약 10%만을 달성한 상태다.

“보스톤의 한인들 또는 한인 단체들이 후원의 손길을 뻗어주어 가치 있는 음악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는 이 씨는 “후원자들에게 무료 공연이나 앨범에 이름을 실는 방법으로 보답할 것” 을 약속했다.

빅밴드 프로젝트 후원은 킥스타터 웹 사이트 (kickstarter.com/projects/1360618110/jihye-lee-jazz-orchestra) 또는 이지혜 씨 (jihyelee.me@gmail.com, 617-515-3036)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오는 가을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된 이지혜 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재즈 작곡에서 가장 높은 상인 ‘듀크 엘링턴 어워즈 (Duke Ellington Awards)’ 를 두 해 연속 수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맨



버클리 출신 보컬리스트 겸 작곡가 이지혜 씨

해튼 음대 진학 후에는 보스톤과 뉴욕 다. 을 오가며 음악활동을 이어갈 예정이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지난 24일 개최된 뉴햄프셔 한국전 보은행사에서 엄성준 총영사와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왼쪽)이 참전용사의 가슴에 기념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NH 한국전 참전용사 “잊지 않고 기억해줘 늘 감사”

뉴햄프셔 보은행사 120여명 참석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 연례행사인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가 지난 24일 뉴햄프셔 주 국군묘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맑은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뉴햄프셔 주 전역에서 모인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 및 지인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미군 기수들의 양국국기입장으로 시작되었고, 한국계 초등학교생인 제인 윤양(Jane Yun)의 양국 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주 보스턴 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감한 정신을 한국정부는 항상 기억할 것” 이라고 강조했으며 한인회장 임원

들과 함께 한인회에서 준비한 한국전 기념핀을 참전용사들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이어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매기 하산 뉴햄프셔 주지사의 편지를 대독한 후 주지사 사무실로부터 전달받은 공로장을 전달했다.

참전 용사들 또한 단상에 올라 그들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전 용사는 “아직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이처럼 보은 행사를 해마다 열어주는 뉴햄프셔 한인회에 감사한다” 고 전했다.

행사 후에는 저녁식사로 푸짐한 한식 뷔페가 제공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대형수건이 선물로 증정되었다.

이날 뉴햄프셔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는 윌리엄 레넬 주 방위군 사령관과 진 샤힌 연방 상원의원실의 크리스 스콧, 켈리 아요트 연방 상원의원실의 크리스 코넬리가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영웅적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는 상원 의원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바다향 물씬~ 보스톤 해산물 축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해산물을 좋아하거나 보스톤의 이색적인 축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오는 8월 2일에 열리는 보스톤 해산물 축제를 놓칠 수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스톤 해산물 축제(Boston Seafood Festival) 사우스 보스톤에 위치한 보스톤 피쉬 피어(Boston Fish Pier)에서 개최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선 손질하기 대회’, ‘셰프 요리 데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해산물 축제는 보스톤 유명 시푸드 레스토랑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올해 참가하는 후원 레스토랑으로는 더 바킹 크랩(The Barking Crab), 더 데일리 캐치(The Daily Catch), 양키 랍스터(Yankee Lobster Co.), 노네임 레스토랑(No Name Restaurant)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곡예, 사자춤, 댄스 공연, 페이스 페인팅 등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티켓은 일반 \$15, 12세 이하 어린이 \$5이며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티켓 구매는 행사 장소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이벤트 브라이트 링크(eventbrite.com/e/boston-seafood-festival-tickets-16900747591)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올해가 4회째로 열리는 보스톤 해산물 축제는 보스톤 어항 개항 101주년 축하행사로 개최되며 비영리법인 보스톤 수산업 재단이 주관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8월 2일 일요일

장소: 보스톤 피쉬 피어(212 Northern Avenue, Boston, MA 02210)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해산물 축제가 오는 2일 일요일 사우스 보스톤에 위치한 보스톤 피쉬 피어에서 열린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제 17기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출범식

정기회의 분기별 열어 위원들간 친목
차세대 육성과 발굴에 주력할 것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함요한 기자 = 제 17기 민주평통통일 자문회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 간사 황우성)의 출범식이 오는 8월3일 6시 프래밍햄 소재 세라튼 호텔 (1657 Worcester, Framingham MA)에서 개최된다.

한선우 민주평통 신입회장은 10년 넘게 평통 위원이었으며 13, 14기에는 평통 간사로 활동해온 경험도 있다. 한 회장은 “이번에 임명된 간사 황우성, 부회장 (박영찬, 장수인, 이동문) 외 훌륭한 임원진들과 보충해서 17기를 이끌어 갈 생각이라” 고 밝혔다.

한 회장은 최근 평통 운영에 대해 불만이 제기 되고 자금 이용 의혹 제기 관련해서 ‘평통 운영에 대한 충고와 문제점들에 대해 가슴 깊이 새겨듣고

고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위원들간의 친목과 의견 나눔으로 통일관,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도 교육을 예정할 것이다” 며 “정기회의를 통해 약식으로 재정보고를 하고 부간사를 지명하여 간사의 행정적인 일들을 분담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17기에는 차세대 위원들이 반이 넘어 위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며 평통의 중요한 사안 점으로서 차세대 육성과 발굴에 주력할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회장은 “17기에는 ‘통일은 대박’ 이라는 대통령 말씀같이 한인사회에도 통일 공감대를 이루어나가고 통일을 향해 전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제 17기민주평통통일 출범식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선우 회장 (marathoncomputer@gmail.com)에 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8월 3일 월요일 6시



제 17기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회장으로 임명된 전 한인회장 한선우

장소: Sheraton Framingham Hotel & Conference Center, 1657 Worcester Rd, Framingham, MA 01701
jham@bostonkorea.com



전미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디씨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인 인재들, 미 전역에서 두각 나타내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한반도의 평화통일,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공식사과, 특별취업비자의 의회 결의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22일 저녁 하얏트 호텔 캐피탈에서 개최된 특별 만찬에서 훈다의원은 아베의 즉각적인 정신대 공식사과를 촉구하였으며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지난 21일, 미주 전역에서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 운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가졌다.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디씨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캐피탈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 정계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운동가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보스턴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회장은 “민주평통의 업무는 마쳤지만 더 자유롭게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로는

안드레 카슨 의원은 “앞으로 출중한 한인 인재들이 미 전역 각 분야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낼 것” 이라며 “앞으로 한인 여성 대통령을 기대한다” 고 말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인 인사로는 안호영 주미대사와 나경원 국회 외교위원장,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 등이 공식 참석해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협조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권 취득 위한 무료 워크샵 연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오는 8월 8일 토요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제 22회 무료 워크샵을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한다.

워크샵에서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는 모든 참석자들의 신청서(N-400) 작성, 사진촬영, 복사 등 시민권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돕고, 한인 변호사들이 각 신청서 기재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질의 응답과 함께 무료 서명을 해준다. 18세 미만은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영주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이름, 이민국에 송부할 시민권 신청료(\$595)와 지문 채취료(\$85) 총 \$680의 개인수표 혹은 머니 오더 (Payable to 'USCIS'), 미리 기입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가져와야 한다.

시민권 신청서 양식(N-400)과 설명서는 www.uscis.gov 에서 'Immigration Forms' 을 클릭하고 'forms and fees' 를 선택한 후 화면아래로

내려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관한 개인별 특별문의(예: 불법체류 사면자, 전과자 등)는 이경해 시민협회장(508-962-2689) 또는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보스턴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이번 주말엔 블루베리 픽킹을 떠나보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이번 주말엔 뭐하지?” 주말이 돌아올 때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픈 아빠, 엄마들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번 주말에는 자연을 즐기면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과일도 맛볼 수 있는 블루베리 픽킹을 떠나보자.

▶Tougas Family Farm

보스톤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특성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 하나이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딸기, 체리, 복숭아, 블랙베리, 사과 그리고 호박까지 시즌별로 다양하게 픽킹을 경험해 볼 수 있다. 7-8월은 블루베리가 한창이며 복숭아도 지금부터 9월 초까지 픽킹 가능하다.

블루베리의 경우, 10 파운드 이하는 파운드당



\$3.99, 10파운드 이상은 파운드당 \$3.49다. 픽킹 전 일인당 입장료로 \$5를 내야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딴 블루베리 가격에서 입장료를 감해준다. 과일이 익는 시간 등을 고려해 며칠씩 간격을 두고 오픈과 휴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사이트를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234 Ball Street, Northboro, MA 01532

<http://www.tougasfarm.com>

508-393-6406

▶Parlee Farms

블루베리 픽킹 뿐만 아니라 농장 동물 식구들을 볼 수 있는 Annie's Animal Barn 또한 인기이다. 아기 염소에서부터 양, 닭, 토끼까지 70여마리의 동물들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염소나 양에게는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도 가능하다.

Parlee Farm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수확한 과일 혹은 로컬 재료로 직접 만든 홈페이지식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 때문인데, 그 중 이곳의 Cider Donut은 NECN(New England Cable News) 독자들에게 의해 '2014 뉴잉글랜드 최고의 Cider Donut' 으로 뽑힌 바 있다. 블루베리 픽킹 스케줄은 역시나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소: 95 Farwell Road Tyngsboro, MA, 01879

문의: 978-649-3854

parleefarms.com

▶Russell Orchards

시즌에 따라 픽킹 가능한 과일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되며, 현재는 블루베리 픽킹만 가능하다. 픽킹 시 컨테이너는 무료 제공되며, 블루베리는 무게를 달아 계산한다. 일인당 입장료는 \$3이다. Parlee Farm과 더불어 Cider Donut 으로 유명하며, 직접 담근 와인을 시음해 볼 수 있는 와이너리 또한 인기다. 주말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 반까지 시음이 가능하며(\$5에 네 종류의 와인 시음 가능) 평일 시음은 별도로 예약을 해야 한다.

143 Argilla Road, Ipswich, MA 01938

<http://www.russellorchards.com>

978-356-5366

▶C.N. SMITH FARM

80년동안 3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가족 농장이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작된 블루베리 픽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나, 역시나 방문 전 스케줄 체크를 해 두는 것이 좋다. 10파운드 이하는 파운드당 \$4, 10파운드 이상은 파운드당 \$3.75이다. 8월 16-17일 양일간 Corn Festival도 열릴 예정이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또한 Garden Center 도 운영되고 있어 Gardening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325 South St. East Bridgewater, MA 02333

<http://cnsmithfarminc.com>

508-378-2270

블루베리 관련 TIP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눈에 좋고, 혈관에 피가 응고되는 것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좋다. 항산화에 효과적인 폴리페놀, 비타민A, E성분이 사과보다 3배 이상 풍부하다. 단, 블루베리는 열과 수분에 약하니 물에 담가 씻는 것을 피하고, 냉장 보관해야 한다. 물에 담으면 쉽게 무르므로 먹기 바로 전에 씻는 것이 좋다. 보통 블루베리는 냉장고에서 1주에서 최대 2주까지도 보관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씻지 않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씻은 후라면 최대한 물기를 제거 후 냉동해야 서로 달라붙지 않고 무르지 않는다.

htj@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운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17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도시에서 자연아이를 키우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생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상 생태 학습을 위해 멀리 떠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약 6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풍부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자연생태공원이 있어 소개해 볼까 한다.

Mass Audubon's Habitat Education Center & Wildlife Sanctuary는 Belmont에 위치한 생태 보호 공원으로, 약 88에이커 (약11만평)의 공간에 목초지에서부터 생태습지, 생태연못, 다양한 코스의 숲 산책로까지 갖추고 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다채로운 생태 프로그램이 연중 내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8-9월에 걸쳐 참여해 볼 만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assaudubon.org/get-outdoors/wildlife-sanctuaries/habitat>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시 주소는 10 Juniper Rd, Belmont, MA이다.

▶ Summer Evening Mushroom Walk

8월 12일 저녁 6시부터 7시 45분까지 다양한 종류의 야생 버섯들을 trail코스를 따라 산책하며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은 성인이나, 8세 이상 어린이일 경우 성인과 동행하면 참여 가능하다. 회원가는 1인 \$12이며 비회원가는 1인 \$15이다. 온라인 혹은 전화로 (617-489-5050) 참여 신청 가능하며, Education Coordinator가 동행한다.

▶ A Night at the Pond

8월 19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까지



Habitat 생태공원 방문자 센터에 위치한 정원

연못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자연해설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해 연못에 직접 그물을 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생 식물과 다양한 곤충을 채취해 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생태 학습으로 좋은 경험이 될 듯하다. 단, 개별적으로 부츠와 bugspray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회원가는 성인 \$6, 어린이 \$6이며, 비회원가는 성인, 어린이 각 \$8이다. 온라인 혹은 전화로 (617-489-5050) 미리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Habitat 생태공원에서 아이들 수업 모습

▶ 자연 유치원 프로그램 Nursery School Naturalist Program 2015-2016 (만 3-4세)

자연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 가격은 \$900-\$1,125이며 연령 및 요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통 아침 9시 30분 혹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며,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과 야외에서의 관찰 수업이 매 수업마다 병행된다. 자연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연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멤버 연회비 \$65)

현재 접수 중이며,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 참여하려면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단, 접수는 전화로 (617-489-5050)와 우편으로만 받고 있다.

htj@bostonkorea.com

'백 투 스쿨' 프로모션

애플, 맥 구매하면 200달러짜리 비츠 헤드폰 무상 증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7월도 어느덧 끝자락이다. 9월부터 시작될 새 학년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백 투 스쿨' 프로모션들을 소개한다.

▶ 애플

2015 '백 투 스쿨' (Back to school)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iMac, MacBook, MacBook Pro, MacBook Air 또는 Mac Pro model 구매 시 비츠(Beats)사의 Solo2 헤드폰을 증정한다.

지난 7월 24일부터 오프라인 직영 매장 혹은 애플 공식 대리점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되었고, 온라인 매장 혹은 1-800-MY-APPLE를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프로모션이 적용된다. 프로모션은 온,오프매장 모두 9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백 투 스쿨' 프로모션은 맥 구매 시 \$100 기프트카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구매 시 \$50 기프트카드를 증정해 온데 반해, 올해는 200달러 상당의 "Solo2 On-Ear Headphones" 을 무료로 증정 받거나, 또는 300달러 상당의 'Solo2 Wireless On-Ear Headphones' 을 1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즉, 어떤 헤드폰을 선택하더라도 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비츠 헤드폰 프로모션 대상이 아니며, '맥 미니'와 각종 리퍼브(refurbished) 제품 또한 제외된다.

프로모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고객은 현 대학생, 대학 입학 예정자, 교직원 혹은 학부모로 제한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은 적용받을 수 있다. 비츠사의 헤드폰과는 별도로 맥 자체에도 학생 할인가가 적용되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아이패드의 경우에도 20달러까지의 별도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Staples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백 투 스쿨' 프로모션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서 더 저렴한 동일 제품을 발견할 경우 그 가격에 맞춰주는 것은 물론, 차액의 10%까지 보태 추가 할인해 준다.

▶ Old navy

최고 60%까지 '백 투 스쿨' 할인이 진행 중이다. 4달러선 티셔츠를 비롯하여 8달러선의 청바지까지 다양하다. 프로모션은 9월 노동절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핫딜 사이트

'백 투 스쿨' 프로모션 이외에도 다양한 핫딜과 쿠폰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한 두군데 알아두면 평소 쇼핑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슬릭딜스 (<http://slickdeals.net/>), 딜 뉴스 (<http://dealnews.com/>) 등이 종합 핫딜 사이트로 유명하며, 한인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인 미씨쿠폰스 (<http://www.missycoupons.com/>)를 통해서도 알뜰 쇼핑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j@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안동 5년, 20년 경력 / 명저한 주사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cn.com

"광산의 환한 미소가 마뽀담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베시류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미국 내 최고의 교육 시스템, 매사추세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교육의 도시 보스톤을 주도로 하는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월렛허브(wallethub.com)에서 미국 전체의 학교 시스템을 주 단위로 분석한 결과 매사추세츠 주는 전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월렛허브는 개인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트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주의 공립 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월렛허브는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교육의 질과 안전성 분야로 나누어 각 주들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1위를, 안전성 면에서는 2위를 기록해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월렛허브는 각 주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낙제 비율, 수학 점수, 읽기 점수, 평균 SAT 점수, 학생과 교사 비율, 집단 괴롭힘 사고 비율 등 13개의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여 최고

의 주와 최악의 주를 선정하고 순위를 매겼다.

매사추세츠 주는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매사추세츠 주는 교사와 학생 비율에서 11위, 낙제 비율이 17위를 기록했으나 평균 SAT 점수는 25위로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였다.

월렛허브의 평가에서 학교 시스템이 가장 안 좋은 하위 5개 주는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DC, 알래스카 순서였다.

jsi@bostonkorea.com

전체 순위	주 이름	교육의 질 순위	안전성 순위
1	Massachusetts	2	1
2	Colorado	1	47
3	New Jersey	5	9
4	Wisconsin	4	14
5	Kentucky	10	4
6	Vermont	6	12
7	North Dakota	3	46
8	Minnesota	9	16
9	Connecticut	7	28
10	Illinois	8	32

미국에서 교육 시스템이 우수한 상위 10개 주 (월렛허브 선정)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가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을 트위터에서 비난했다

트럼프, 월시 시장 올림픽 포기 비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연이은 화제성 발언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공화당의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는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을 겨냥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는 막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공화당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월시 시장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27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노골적으로 월시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보스톤 시장 월시는 막대한 시간과 돈을 올림픽 유치에 낭비한 뒤 포기해 버렸다.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

지 않다!” 라고 말했다. 월시 시장은 트럼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월시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보스톤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월시 시장과 트럼프 사이의 감정 싸움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월시 시장은 트럼프가 보스톤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이민자들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지옥 같은 사무실에서 그를 끌어내야 한다” 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인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억회복
- 면역력 증진
- 장수 예방
- 간헐산상 기능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화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8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상하원 대출 한도 증대 승인, SBA 론 곧 재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소기업들은 조만간 다시 사업자금 등에 필요한 SBA론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하원은 28일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대표적인 론인 7(a)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현행 187억 5천만달러에서 235억달러로 높이는 안을 승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대출 한도 인상안을 통과시켰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3일 미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를 두 달을 더 남겨둔 상태에서 연 대출한도에 대해 대출을 중단했다. 최근 들어 미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주들은 좀더 사업을 확장키 위해 대출을 늘려왔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7(a)론을 통해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때로는 장비나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키도 한다.

SBA론은 대출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아 월 납부 금액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SBA론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일

단 SBA Boston 웹사이트에 들어가 SBA론을 신청하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각종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전화로 연락한다. 이들을 만나 대출 금액을 이야기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sb@bostonkorea.com



올해도 세일즈텍스 할리데이 8월 15,16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는 29일 올여름 2일간 6.25%의 세일즈텍스를 면제하는 세일즈텍스 할리데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의 세일즈텍스 할리데이는 오는 8월 15,16일 양일로 \$2500 이하의 모든 소매물품에 대해 세금부과를 면제한다.

지난 11년 동안 10번이나 세일즈텍스 할리데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점차 거세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 차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136대 20, 상원은 27대 11이었다. 이 법안은 또한번의 절차상 투표를 거친 후 찰리 베이커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보스톤 글로브와의 29일 인터뷰에서 만약 지난해의 법안과 유사하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일즈 텍스 할리데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가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의회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일즈 텍스 할리데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보다는 다른 날에서 세일즈 텍스 할리데이 2일간으로 소비를 이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경제 창출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 주는 2천 5백만불의 세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은 세일즈텍스 할리데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비의 이동에 불과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매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대불황 시기이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시행되어 왔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일부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세일즈텍스 할리데이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차라리 봄비는 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느니 비교적 한적하고 1년 365일 세일즈 텍스가 없는 뉴햄프셔에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2024 올림픽 개최 포기선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올림픽 2024에 대한 보스톤 주민들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인해 보스톤 올림픽 2024 준비위원회는 향후 개최지선정 참여를 포기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27일 보스톤 올림픽 철회소식을 전하며 미 올림픽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미국내 개최 후보 도시를 선정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스톤 올림픽 2024 준비위 스티브 패들리우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보스톤 2024 준비위원회는 미국내 개최 후보 도시에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톤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반대 그룹은 “2024 보스톤 올림픽을 포

기하는 것이 훨씬 잘 된 결정” 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스톤 올림픽 2024가 철회선언을 하게 된 것은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가 27일 기자회견에서 "보스톤 올림픽 조직위가 예산을 모두 탕진했을 때 보스톤 시 납세자들에게 이를 감당해달라고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보스톤 올림픽 개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선언까지 이르게 됐다.

보스톤 상공회의소 제임스 루니 대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가 27일 보스톤 올림픽 개최 포기를 선언했다

표는 성명서를 통해 “올림픽 게임이 보스톤에 아주 흥미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은 사실이지만 마틴 월시 시장과 베이커 주지사가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였다” 고 평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다문화어권**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남아시아 New Star Realty의 대표인 Gina Choi는 10년째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MBA)를 취득하고 전직 FINANCIAL CAMBRIDGE 지역 1위 실업률 3.4%를 달성하며, 10년 이상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목의 정확,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gr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남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인, 한마루, 사출 실방만, 침실과대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분 안에 10점 일 장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방문상은 매체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98688

'미국자유법' 따라 미 정보기관들 수집 개인 통신기록 폐기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그간 수집한 통신기록을 사용중단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통과된 미국자유법에 따라 오는 11월29일부터 통신기록에 대한 접근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합의 목적에서 기술 담당자에게 3개월간 추가적인 접근권한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DNI는 현재 NSA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마무리할 때까지 수집된 통신기록을 보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은 테러와 무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Patriot Act)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NSA는 지난 2001년 9·11테러 발생으로 제정된 애국법에 따라 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기록 수집을 단행했으며 이 자료를 5년간 보관했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비밀 감청 프로그램을 폭로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미국자유법은 정부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 통신회사에 요청해야만 접근할 수 있고 정보기관이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통신기록 접근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NSA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뜻하는 '외로운 늑대'를 감시할 수 없게 됐으며 통신기기를 바꿔가며 활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 역시 금지됐다.

yeoulim@news1.kr

미 공화당 1인자 베이너에 반란...추출 결의안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오하이오)에 대한 기습 추출 결의안이 제출돼 미 정가가 시끄럽다.

같은 당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지난 28일 베이너를 의장직에서 축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기치 못한 재선 의원의 '반란'에, 가까운 의원들조차 어리둥절해하는 등 동조세력이 거의 없어 찬찬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메도스 의원은 이날 오후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된 국민의 대표는 보복의 위험 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서 "베이너 의장이 하원의원 435명을 건너뛰고 권력 강화와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추구했다"며 "이로써 의회의 권한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메도스 의원이 추출 결의안을 낸 것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관련 무역법안을 둘러싼 베이너 의장과 갈등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이너 의장은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손을 잡았고, 오바마 정부에 무역협상 추진 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의 절차투표에서 "뭉쳐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내 보수의원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를 이끄는 그는 베이너의 이러한 입장에 반기를 들고 절차

투표 당시 반대투표를 했다. 그 보복조치로 지난 6월 자신이 맡고 있던 정부 개혁·감독 소위 위원장에서 쫓겨났다.

미 정가에서는 메도스가 낸 결의안이 절차를 밟아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을 처음 심사할 규칙위원회의 피트 세션스 위원장(텍사스)이 베이너와 가까운 인물이다. 그가 추출 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시각이다.

또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협상 합의의 무력화라는 큰 싸움에 뛰어들 상황에서 베이너를 추출하겠다는 내부 반란은 대오를 분산시킬 우려가 크다는데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피터 킹 의원(공화·뉴욕)은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The Hill)과 행한 인터뷰에서 베이너 추출안에 대해 "8월 내내 이란 핵합의에 대해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만 돕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메도스 의원의 추출안 제출에 "대수롭지 않다"며 "나는 의회 다수를 형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메도스 의원은 한 명의 의회 의원일 뿐"이라며 "솔직히 표결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 힐은 "하원 지도부가 반란자를 처벌하고 나서, 베이너 의장과 보수 의원들 사이의 불화가 매우 고조됐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shin@yna.co.kr

미국 2분기 GDP 2.3% ↑ ...소비·수출이 견인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2.3% 성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기준으로 이 같은 성장률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2.5~2.8%였다.

당초 마이너스 0.2%로 발표됐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0.6%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3년여 동안의 분기별 GDP 집계가 수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1%, 4.6%, 5.0%, 2.2%였던 미국 GDP는 -0.9%, 4.6%, 4.3%, 2.1%로 변경됐다.

상무부는 "개인소비지출(PCE)과 수출, 정부 지출의 증가가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민간 투자와 수입 감소는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PCE 증가율은 2.9%로 지난 1분기의 1.8%보다 높아졌지만, 지난해 2분기의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3.7%로 지난 1분기보다 1.9%포인트 늘어났으나, 작년 2분기의 5.2%보다는 낮았다. 이에 비해 비거주자 고정자산 투자는 마이너스 0.6%를 기록해,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GDP 물가지수는 지난 2분기에 2.2% 상승하며 세 분기만에 상승 반전했다.

연준은 지난달 올해의 GDP 예상 성장률을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15일 하원 금융위원회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올해 초에 발생했던 미국 경제의 부진이 "일시적 요인"이라며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이런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2분기 GDP가 완만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전날 7월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지만,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smile@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arks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파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실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Elise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 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 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사술 지도

118 Cordish St. Southend MA 0211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56

Beauty & Hair
Mon-Sun 10am - 7pm
Spc: 10am - 6pm
머리카락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9월 인상 가능성은 열어나

고용시장 연동 가능성도 제기...합리적 확산' 표현은 이번에도 유지

고용·주택시장 호조 확인...경제 전망 위험요인 '거의 균형'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현행 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29일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현재 수준을 유지해 왔다.

또 연준은 지난 3월부터 FOMC 회의 결과 성명에 등장했던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까지 회복된다'는 합리적 확산을 가진 뒤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한다'는 문장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FOMC 성명에서는 고용과 주택시장의 호조를 강조했다. 이는 두드러졌다.

연준은 FOMC 위원들이 일자리 증가에 대해 '견조하다'고 판단했고,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균형됐다'는 지난 6월 성명 때의 표현이 유지됐다.

그동안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었던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연준 성명에서는 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지난 5월부터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온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15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 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준에서 물가 지표로 삼고 있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5월 1.2%에 머물렀고, 그리스 채무불이행 위기나 중국 증시 불안 같은 외부 악재가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펀드 매니저나 경제담당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가 오는 9월 금리인상을 예상했지만, CNBC가 이날 발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9월 인상을 예상한 사람은 50% 남짓에 불과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설문조사를 통한 9월 인상 가능성을 "50% 전후"로 제시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오는 9월 FOMC 정례회의 전까지의 미국 경제 상황이 두드러지게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두드러진 성명 문구의 변화가 없는 이날 FOMC 성명을 기준금리 인상이 오는 9월부터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연구원은 "이날 성명의 '합리적 판단' 문구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 지난 6월에는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였지만 이달에는 '노동시장이 좀(some) 더 개선되고'로 바뀌었다"며 "앞으로 일자리 관련 지표가 더 나아진다면 9월 금리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FOMC 성명문에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FOMC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다음 FOMC 정례회의는 오는 9월 16일부터 이를 동안 열린다. 이때는 FOMC 위원들의 경제전망 발표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smile@yna.co.kr

"금값 3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2가지 이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금값이 장기 약세 속에 온스당 1천 달러를 밑돌 것이냐에 시장 관

심이 쏠린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350달러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견해가 월가 일각에서 제시돼 눈길을 끈다.

마켓워치는 TCW 그룹 원자재 투자관리자를 지낸 클라우드 에르브와 미국 듀크대의 캠프 하비 재정책 교수와 이렇게 극히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고 29일 전했다.

두 경제학자는 이와 관련해 금값 붕괴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고 마켓워치는 덧붙였다.

마켓워치는 두 사람이 2012년 중반 발표한 공동 분석에서 '공정한 금값'을 온스당 825달러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약 500달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훨씬 더 비관적인 입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2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하나는 '공정한 금 시세'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며, 또 하나는 공정 가치를 크게 웃돌거나 밑돌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중반과 1990년대 말에 공정 가치보다 크게 떨어진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런 논리를 원용하면, 금값이 350달러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에르브는 이와 관련, 심리학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가설도 동원해 설명했다.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즉, 부정(denial)→분노(anger)→협상(bargaining)→우울(depression)→순응(acceptance)인데, 지금의 금값은 협상 단계라는 것이다.

그는 2012년 중반 자신들이 공정한 금 값을 800달러대로 평가했을 때는 부정 단계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분노 국면을 거쳐 지금은 "신과의 협상" 단계에 이르렀다고 에르브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값이 온스당 1천 달러를 계속 웃돌면 매주 일요일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에르브는 자신들의 논리가 과격하다는 비판에 반박하면서, 세계적인 부동산 전문 경제학자 로버트 쉐러 예일대 교수의 증시 비관론을 상기시켰다.

마켓워치는 미국 증시가 최소한 1990년대 초 이후 과다 평가됐다는 것이 쉐러의 논리를 상기시켰다.

에르브와 하비 두 사람은 인플레이가 금값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통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즉, 시장은 그런 논리가 '초장기 관점'이라고 강조하지만, 기껏해야 그 기간이 몇십 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온스당 1천 달러를 밑돌 것이냐 아니냐의 관점도 그런 연장 선상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그 기간을 몇백 년으로 확대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두 사람은 강조했다.

jksun@yna.co.kr

애플 워치 미국 베스트바이서 판매... 명품전략 벗어나 대중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손목에 차는 스마트 단말기 '애플 워치'가 미국 최대의 가전제품 체인인 베스트바이에서 다음 달 7일부터 판매된다.

이는 애플이 이 제품의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워치를 내놓은 올해 4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애플은 온라인·오프라인 애플 스토어, 일부 대리점과 명품 전문점을 통해서만 이 제품을 판매해 왔다.

베스트바이는 애플 워치를 미국 내 100개 매장에 일단 비치하고 연말 쇼핑철 전까지 300개 매장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베스트바이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다만, 애플 워치의 모든 모델이 베



'애플 워치'가 미국 최대의 가전제품 체인인 베스트바이에서 다음 달 7일부터 판매된다

트바이에서 전시·판매되는 것은 아니며, 금강 모델 '애플 워치 이디션' 모델 등 고가 제품은 제외된다.

베스트바이는 알루미늄으로 된 '애플 워치 스포츠'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애플 워치' 중 16개 모델과 시계 줄, 스탠드, 충전기 등을 고객이 차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예정이다.

베스트바이는 재작년과 작년에 매장 한가운데에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를 전시하는 특별 전시대를 마련한 적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애플 워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yeoulim@news1.kr

아마존 시가총액, 월마트 추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 순위에서 월마트를 앞질렀다.

23일 마켓워치,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이날 장외거래에서 2천670억 달러로 치솟아 월마트(2천335억 달러)를 제치고 소매 유통업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아마존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낸 점이 주가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23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0% 늘었다. 순이익 역시 9천200만 달러(1주당 19센트)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아마존 주가는 이에 힘입어 1주당 573.45 달러로 19% 상승했고 곧바로 시가총액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뀌기는 했지만 월마트의 연간 매출은 아마존의 5배에 달한다. 아마존은 온라인 기반 유통업체인데 반해 월마트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성격도 다르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월마트가 최근 배송서비스를 내놓자 맞대응으로 무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등 월마트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마트도 최근 온라인 회원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웹 서비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heeva@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불릭앵거스 비프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불릭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 11:30AM~12:00AM
193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휴람제휴
이벤트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상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안과·외과·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 백내장, 녹내장, AS(당뇨) 관련 검진, 안압, 시력, 시야 검사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교시 + 렌즈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팅/임플란트/영동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박관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전, 윤곽술,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결합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일몰)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매쉬 리프트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국정원 해킹 및 민간사찰 의혹

야, "국정원 해킹 피해자 있다" 총공세... 입증되면 새 국면

야,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시사

국정원 말 바꾸기, 임 과장 변사사건 의혹 등 제기하며 공세 지속

(서울=뉴스1) 김현, 박응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 민간인 사찰 의혹에 불씨를 살려 나갔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 해킹 정국이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숨진) 국정원 임과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는데, 과장 직급의 직원이 대북 해킹을 주도했다는 국

정원은 동네 흥신소만도 못한 조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은) 피해자가 없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있다"면서 "간접 자료에 의해 사용한 흔적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있는 지 여부는 국민 사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국민의 88%인 4400만명의 정보 41억건이 불법 수집됐고, 지난 2년간 방송국과 은행 등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고 판매정보 단말기 해킹 등으로 7000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으며, 산업기술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최고 37조원에 달한다"며 "이런 각종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는 판에 국정원은 뭐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하필 총선 전, 대선 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는지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임 과장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임 과장 부인이 112 신고 후 취소와 재신고를 반복한 점 △119소방대가 마티즈 차량 발견 후 휴대폰으로 통화한 점 △119 소방대가 마티즈 차량 발견 후 27분 만에 시신 발견했다고 무전 교신한 점 △임 과장 사망 위치 정정 △현장에 용인소방서가 아닌 경기도 소방본부 출동한 점 △임 과장 부인이 접근처 용인경찰서가 아닌 동백과출소에서 신고한 점 △장례 치른 다음날 마티즈 차량을 폐차한 점 등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셀프조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원은 자체 셀프조사를 통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당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정원은) 답변할 때마다 계속 모순되고 말 바꾸기가 이어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며 "자살 직원이 아무런 문제 없는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에 이르렀는지, 컴퓨터 전문가가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후 자살에 이르렀는지, 자살

직원은 단독으로 삭제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대해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자료 복구에) 일주일도 걸린 데 어떤 설명도 없는 것, 사망 직원에 대해 단순 기술자라고 해명했다가 총책임자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여당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진정한 안보를 생각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정보기관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arist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woody College
-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LY 31ST - AUG. 6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Summer Savings Hottest Sale

ENJOY ALL YOUR SUMMER FAVORITES AT HMART! COLD NOODLES, SUMMER FRUITS, ICE CREAM & SO MUCH MORE!

이보다 더 뜨거운 세일은 없다!

FRI./SAT./SUN ONLY
31/7/2 ONLY

White Necktarine
백천도
\$1.99/lb.

FROZEN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lb.

FROZEN

Squid
냉동 오징어
\$1.99/lb.

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냉동 궁중 당면
1.5 lbs. ea./for \$2.5

HANARO Portable Gas Stove
HSB-0907/ea.
\$16.99

go go go to our

SAJO SALES EVENT

· 사조 브랜드 모음전 & 시식회 ·

세계 일류 종합 식품 기업, 사조 브랜드의 베스트 상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H마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조 브랜드 모음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JULY 31ST - AUG. 2ND, 2015

蔘鷄湯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2\$14.88 ea./for

KABOCHA THE MOST DELICIOUS AND NUTRITIOUS PUMPKIN SALAD SALAD ON EARTH!

맛과 영양이 풍부한 진가 단호박 샐러드를 H마트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11oz./pkg. **\$3.99**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Fuji Apple 후지 사과 \$0.99/lb.

FILLED WITH SWEETNESS AND VITAMINS FOR YOUR BODY.
White Peach 백도 \$1.99/lb.

<p>IT HELPS YOU TO FIGHT BACTERIA. Ginger 생강 \$1.99/lb.</p>	<p>Pack of Garlic 팩 마늘 5cmt/pkg. 2\$3 pkg./for</p>	<p>Boneless Beef Rib Eye Steak 꽃등심 스테이크 lb. \$16.99</p>	<p>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생 목살 lb. \$5.99</p>	<p>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p>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lb. \$5.99</p>
<p>Whiting 생태 \$1.99/lb.</p>	<p>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3.99</p>	<p>Dried Dasi Anchovy 다시 멸치 3.3 lbs./box \$25.99</p>	<p>SANFORD Half-Shelled Mussels 반칸 홍합 2 lbs./pkg. \$7.99</p>	<p>CHUNG JUNGONE Red Pepper Paste 청정원 태양초 찰고추장 6.6 lbs. \$12.99</p>	<p>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 소스 16.7fl.oz. \$2.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p>	<p>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갑산 현미 15 lbs. \$9.99</p>	<p>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 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p>	<p>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박스 Hot/Mild/4.23oz. x 20ea./box \$10.99</p>	<p>DANYA Seasoned Pollack Roe 단야 명란젓 7oz. \$6.99</p>	<p>BINGGRAE Melona Ice Bar 빙그레 메로나 All Flavors/ 2.7fl.oz. x 8bars/box \$3.99</p>
<p>KWANG DONG Vita500 광동 비타500 100mL x 10btl./box \$4.99</p>	<p>PEARL ROYAL Coconut Water 펄 로얄 코코넛 워터 All Varieties/ 10.5fl.oz. \$0.99</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3.99</p>	<p>Straw Sitting Cushion 왕골 방석 40cm x 40cm/ea. \$1.99</p>	<p>KITCHEN ART Select Cutting Board Set 키친아트 향균 얇은 도마 3종 세트 3pcs/set \$1.99</p>	<p>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S-LAC05XA/ 3cups - ea. \$119.99</p>

국정원 해킹 및 민간사찰 의혹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자신이 관심있는 메시지가 보이면 무심코 클릭하게 된다. 이 같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클릭과 동시에 감시 소프트웨어를 심어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고 통화 내용, 문자 내역 확보 심지어 사진 촬영 그리고 실시간 감시카메라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해킹 소프트웨어를 국정원이 구입했다. 이 소프트웨어 구입 국가들은 대부분 권위주의 또는 준 독재 정권이 들어선 3세계 국가들이었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아당은 민간인 사찰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과 여당은 대북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같은 스파이 웨어는 미국 FBI에서도 사용됐지만 대부분 범인의 영장을 받았고 대테러용으로 한정됐다. 한국의 국정원은 범인의 영장도 받은 바 없고 심지어 감청 장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해명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설피고 자충수적인 요소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빨리 이 문제를 덮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추후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규명 여부에 따라 사안이 갖는 파괴력이 달라질 것이다.

"국정원, '해킹팀'에 카카오톡 감청기능 추가 요구"

'해킹팀 폭로' 시티즌랩 연구원
아트론회 화상 참여

"국정원, 실시간 감청기능에 관심
· 이동사이용 감청도 문의"

"해킹팀, 국정원 정보 접근불가...
북에 RCS 판매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현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해킹팀' 측에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또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리모트 컨트롤시스템(RCS)'의 실시간 감청 기능에 관심을 보였고, 이동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국정원에 해킹 소프트웨어 RCS를 공급한 '해킹팀'을 처음 폭로했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 연구원은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한 '국

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에 패널로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영상회의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한 마크작 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해킹 여부와 관련,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측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국정원은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더해준다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해킹팀"이 실제 그 기능을 보유한 'RCS'를 만들어 공급했는지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회에서 "RCS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크작 연구원은 또 "국정원이 'RCS'의 휴대전화 실시간 감청 기능에도 관심을 가진 걸로 보인다"며 "SK 텔레콤이 이메일에 언급했는데 국정원이 통신사를 이용한 감청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도 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갤럭시노트2 기종을 내부

용으로 해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5, 6월에 국정원이 3개의 안드로이드폰을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영어와 필리핀어로 설정된 전화였다"며 "이 전화를 실험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킹팀"은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 ('RCS'를) 심을 때, 누가 심었는지에 대한 교신내역은 갖고 있지만 두 달만 보관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6월 전 정보는 확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킹팀" 정보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킹 대상 휴대전화의 IP 주소나 모델명, 이동통신사, 국제·국내용 정도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크작 연구원은 북한의 RCS 구매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해킹팀"이 국제적 제재조치를 위배하지 않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해킹팀"이 북한에 RCS를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북용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주문했을 가능성과 관련, "국정원이 대북용으로 북한이 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캐나다 토론토대 비영리 연구팀 '시티즌랩'의 빌 마크작(Bill Marczak)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질문에 영상통화를 통해 답하고 있다

용하는 운영체제(OS)를 해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마크작 연구원은 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국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수행했는지 알 수 없다. 실제 유출된 자료는 극히 적은 양"이라면서 "해킹팀도 국정원이 취득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킹팀"이 감청 대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

정원이 보낸 워드 및 파워포인트 파일, 웹사이트 내용을 보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다른 접근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해킹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객사가 수집한 정보는 각 정부가 각자 독립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팀'이 접근할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 '해킹팀'은 국정원이 누구를 감청했는지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humane@yna.co.kr

국정원 파견갔다가 온 검사들이 해킹 의혹 수사

검찰 "국정원 업무 관여 적어" 해명

"친분관계 있을텐데..." 객관성 논란

(서울=한국일보) 조원일 기자 =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의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객관성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진원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 됐다 올 2월 인사로 돌아와 공안2부에 배치됐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2차장 역시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률 보좌 역할을 할 뿐 국정원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견 경력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국가안보 업무와 깊이 관련이 있고 과거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도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비밀취급 업무 등에 능숙하고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업무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졌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양승봉 변호사는 "검찰은 파견 검사의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명하지만, 파견되면 국정원의 주요 관계자들과 친소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맡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allme11@hankookilbo.com

진보단체 '국정원 해킹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서울=뉴스1) 김태현 인턴기자 =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진보단체들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정원장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41개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이를 내국인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며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국정원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접수했다.

또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제작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허순구 나나테크 대표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

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은 반드시 해명돼야 할 것이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급하게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국민을 해킹하고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고발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을 전담한 박주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뿐 아니라 직권남용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통신과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국정원이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ung9079@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선거구 재편 정개특위 활동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헌법 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도에서 투표의 가치가 불평등 하다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분의1에서 2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판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이전 까지 선거구 조정 및 획정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혼합한 선거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체로 현 소선거구제는 50%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도로써 한국의 지역색깔에 따라 1당 독식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에 유리한 제도다. 따라서 야당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밀어부치고 있는 형국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여 '악몽' 야 '희망'...19대 총선 대입하니

현행 의석 및 야 혁신위(369석)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여 과반의석 붕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圈域)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54석)을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과는 다른 반면 지역구 의석(246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지역구 선거에서 1등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은 동일하다. 유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구 1표, 비례 1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5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현재 지역구 246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맞추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원정수를 369명(지역 246명, 비례 123명)까지 늘리는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취지는 지역주의 완화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7일 "근본적인 정치 개혁은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死票)가 되고 지역주의 구도를 심화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19대 총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 예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시 호남권(광주·제주·전남·전북)에서 단 한 석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은 대구·경북에서 비례 5석, 부산·경남·울산에서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12석 등 14석을 얻는다. 새정치연합은 19대 총선 당시 영남권에서 단 3명의 당선자만 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은 무너지게 된다.

선관위의 시뮬레이션(지역구 203석, 비례 97석 산정) 결과를 의석수로 살펴보면 총 304석(서울 1석, 부산·울산·경남 3석 등 4석의 초과의석 발생) 중 새누리당 141석(지역 105, 비례 36), 새정치연합 117석(지역 87, 비례 30), 자유선진당 10석(지역 3, 비례 7), 통합진보당 34석(지역 6, 비례 28), 무소속 2석(PK권 1석, 호남권 1석)을 차지한다.

19대 총선 당시엔 새누리당 152석(지역 127, 비례 25), 새정치연합 127석(지역 106, 비례 21), 선진당 5석(지역 3, 비례 2), 통진당 13석(지역 7, 비례 6)이었다.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변화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지역구 246석이 203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선진당(10석)의 의석과 합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석(304석)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151석을 얻는 데 그친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 진영도 151석을 차지, 여야간 세력균형을 유지하게 된



국회 본회의장

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시한 안(369명)을 적용할 경우에도 영호남의 지역간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지만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19대 총선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 비율(2015년 1월 기준) 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 372석(초과의석 부산·울산·경남 3석) 가운데 새누리당 170석(지역 127, 비례 43), 새정치연합 145석(지역 106, 비례 39), 선진당 14석(지역 3, 비례 11), 통진당 40

석(지역 7, 비례 33), 무소속 3석이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0석 중 36석(90%)을 얻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59석(지역 40석, 비례 19석) 중 36석(62%)만 차지하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7석을 싹쓸이한 대구·경북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적용으로 의석수가 40석으로 늘어나지만 새누리당에 돌아가는 의석은 30석(75%)에 불과하다.

반면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석(7.5%)을 얻는 데 그쳤던 새정치연합은 18석(31%)으로 늘어난다.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도 6석(15%)을 얻는다.

gayunlove@news1.kr

정개특위 제자리걸음에 '무용론'...여야 용두사미식 절충?

(서울=뉴스1) 김현, 유기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각 당은 물론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전되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던 시한인 내달 13일까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개특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면서 매년 되풀이돼왔던 '정개특위 무용론'이 흘러나온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공식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문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 등과

관련해 '국민 반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1→2대1 축소)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결과와 지역구 증대가 불가피하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여야 동시 실시' 등을 요구하며 공천 제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촉구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불가피할 경우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선 대체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 동시 실시'는 위험 소지가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여야는 또 획정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행 246개의 선거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인접 선거구의 조정 등 불가피할 경우에만 조정하자는 입장과 인구하한선을 초과해 1개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엔 재조정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는 일단 당내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내주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게다가 각 쟁점에 대한 각당내 교섭정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모습이며서 원활한 논의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시한(8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 및 의원정수 등에 대한 국회 논

의마저 매듭지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획정기준 등을 정해준다면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2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충분히 논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선거제도 같은 것은 결론이 쉽게 안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한 관계자도 "선거구획정위가 요구했던 시한까지 논의가 정리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시한에 쫓겨 선거제도 개편엔 손도 대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간 담판 형식을 통해 현행 선거구의 일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급하게 논의를 마무리짓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도 "원내 지도부간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간중간 그 논의는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선 정개특위가 국민 반감이 큰 의원정수 문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획정기준만 정해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정수 문제를 다루도록 공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에서 의원정수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용 시세이도 보스톤
컨설팅/마케팅/모텔
홍은희

"당청 관계 회복에 지지율 동반상승"...박 37.1% · 여 39.5%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선 김무성 4주째 1위"

(경기=뉴스1) 장용석 기자 = 앞서 '국회법' 개정안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당청 관계가 최근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 또한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 즉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2.6%p포인트(p) 오른 37.1%를 기록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6%로 1주일 전 조사 때보다 4.1%p 하락했다.

리얼미터 주간조사 기준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정부 당국의 부실 대응 논란의 영향으로 지난 6월 넷째 주 33.6%까지 떨어졌었으나, 이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7월 첫째 주엔 37.3%로 올랐다.

그러나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유승민 전 원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7월 넷째 주, 리얼미터 제공)

대표의 사퇴로 중도 성향 및 무당층(無黨層) 지지자가 이탈하고,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각각 34.6%와 3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 대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사건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데다, 고위 당정청 회의 재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 보도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7일 33.4%에 그쳤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 직원의 자살(18일)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단체 성명(19일) 이후 20일 36.7%, 21일 37.6% 등으로 올랐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 22일엔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량 번호판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

도 36.4%로 소폭 하락했지만, 23일엔 36.6%로 다시 올랐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24일엔 36.9%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1주일 전보다 2.2%p 오른 39.5%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신당'론(論) 등에 따른 내홍이 이어지면서 같은 기간 2.5%p 떨어진 26.0%로 집계됐다.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주 대비 1.1%p 오른 24.0%로 4주째 1위 자리를 지켰고,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15.8%,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13.6%,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8.6%,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5.7%,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4.6%, 홍준표 경남지사 4.3%, 김문수 전 경기지사 4.0%, 안희정 충남지사 3.2%, 남경필 경기지사 2.8%의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 추이(7월 넷째 주, 리얼미터 제공)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7월 넷째 주, 리얼미터 제공)

이번 조사는 지난 20~24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총 응답자 수는 2500명, 응답률은 CATI 17.7%, ARS 5.3%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ys4174@news1.kr

조현아에 '구치소 편의' 대가로 사업권 요구한 브로커 구속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대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조

전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런 제한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의 실제 로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hwp@news1.kr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조현아 '구치소 편의 청탁' 제3인물 포착

구치소 관계자에 브로커 염씨 소개 역할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감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한 편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가 제3자를 통해 구치소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브로커 염모(51)씨는 제3의 인물 A씨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수감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를 소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내부 인물을 직접 알지 못하던 염씨는 알고 지내던 A씨를 통해 소개를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염씨와 염씨가 청탁 제안한 한진 임원 서모(66)씨 사이의 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희상(7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염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서씨에게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해 서씨에게서 사업권을 따낸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이후 염씨는 지난 5월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는 1997년 대한항공 괄 추락 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이었던 인물로 당시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역대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padeok@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r.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짜마 70분 부터
디지털 130분 부터/개머린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장비 연구장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전원스위치
볼륨다이얼
숫자버튼
비상연전 버튼
반복듣기



1201
1202
1203
1204

전곡, 미전주파수, 발리외감기
재생/일시정지
다음곡, 다음주파수, 발리감기
라디오, 음악모드 전환

- 숫자버튼을 이용한 호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X)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르북,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배상음원전 가능
- 말려있던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다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아이폰등자 채용 (스태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후피채용
- 핸드스프링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트로트
• 성경 흥망파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포함)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Korean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임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쁘게 미사하며 (요한 3:16)
 담임목사: 우시창
 ☎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2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79 • 603-264-6788 • www.nhkk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Church
 401 King St. Boston, MA 02115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ix,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일인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01 King St. Boston, MA 02115 Tel: (617) 695-0275, (617) 695-2404
www.loveth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공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89.5809

보스턴 남부지역의 한인교회
보스턴새힘교회
 Boston New Hope Church

76 Pierce St. Stoughton MA 02072

주일예배 오후 1시 617 622 522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같은, 같은, 부끄러워 할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구별학교, 청소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교회 주일오후 12:30
 속죄교회 수-주일 속죄법
 영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후 6:30, 목 오후 8: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887
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딴섬 같아왔습니다.
 항상 공명하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명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report@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드샷 튜터링 Nabis Studio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새 아기에겐 한국의 사랑을 담아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가지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이지나
이민 변호사



박보나
이민 변호사



Yegul We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8, Brookline, MA 02448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88.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탐 브래디, NFL 상대로 법정 싸움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가 변호인단과 함께 NFL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브래디의 변호인은 지난 29일 저녁, NFL이 브래디에게 내린 4경기 출장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미네아폴리스의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브래디는 지난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규정보다 낮은 풋볼을 사용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혐의로 NFL로부터 4경기 출장 금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브래디는 항소를 제기했고, 브래디가 잘못을 시인하면 NFL이 징계를 수위를 2경기 출장 금지로 낮출 계획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브래디는 거듭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항소에도 불구하고 4경기 출장 금지 처분이라는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브래디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브래디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지는 올해 초에 애드리안 피터슨 소송 결과를 위반한 것이며, 브래디에 대한 조사와 징계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브래디와 변호인단은 브래디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지가 완전히 없어져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브래디가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NFL의 총재인 로저 구델이 선수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고 편

향된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NFL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래디의 변호인단에서 선임 변호사로 고용된 제프리 키슬러는 “브래디에 대한 처벌은 (선수노조와의) 단체 협약의 기본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편향된 중재자는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번 일은 실망스럽지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키슬러는 NFL 선수노조의 사외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NFL은 미국 내 50개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래디는 어느 주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브래디가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미네아폴리스 연방 법원이 노조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렸기 때문이다.

예방책의 일환으로 NFL은 브래디보다 한 달 앞서 28일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NFL이 접수한 소장은 NFL의 결정을 강제하고 브래디와 관련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뉴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NFL과 브래디의 사이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서 어떤 주에서 재판이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의 NFL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브래디는 패트리어츠의 2015 시즌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소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9월 4일까지 내려지거나, 아니면 9월 4일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NFL의 4경기 출장 금지 처분을 법원 명령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트리어츠의 정규시즌은 9월 10일에 시작한다.

브래디가 NF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1

년 NFL의 경기장 폐쇄와 관련한 소송에서 NFL 선수노조와 10명의 선수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브래디는 10명의 선수 중 한 명이였다.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브래디의 변호인은 피터슨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NFL의 처벌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피터슨 사건 당시 법원은 NFL이 선수들에게 가능한 처벌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어겼기 때문에 피터슨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키슬러 변호사는 “브래디가 다른 누군가의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NFL이 충분히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사전에 NFL이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LPGA] '그랜드슬램 도전' 박인비 "압박감 없이 경기 나선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대업에 도전하는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압박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인비는 30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여자 오픈(총상금 300만달러)에 출전한다.

현재까지 LPGA투어 '5대 메이저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를 경우 역대 7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박인비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이 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세 번째 도전이지만 이번에는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박인비는 이날 AFP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 메이저 3연승을 한 뒤 이 대회에서 그랜드슬램에 도전할 때는 정말 많은 긴장과 흥분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직전 대회인 마이어클래식에서 공동 44위로 부진했다. 4라운드에서 4오버파로 부진하면서 순위가 크게 밀렸다.

허리 통증에 시달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박인비는 "지난달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후 허리가 안 좋다. 최근에는 허리를 구부리기도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뒤 줄곧 전담 물리치료사의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대회 출전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대회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 대한 적응도 마쳤다.

박인비는 "좋은 골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곳이 최고인 것 같다"면서 "해가 지고나서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국에서의 경기는 아무래도 번덕스러운 날씨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박인비의 연습 첫 날이었던 27



박인비(27·KB금융그룹)

일은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29일은 화창했다.

박인비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다"면서도 "두

가지의 다른 상황속에서 모두 플레이했다. 준비를 마친 느낌"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인비는 1라운드에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아자하라 무노스(스

페인)와 한 조에 편성돼 동반플레이한다. 1라운드 티오프 시간은 30일 오후 7시59분이다.

starburyny@news1.kr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보스톤 **코리아**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안녕하세요. 보스톤코리아는 한인 여러분만 보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주의 한인신문으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해온 저희가 최고의 한식 전도사 한식 식당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식 식당은 매사추세츠 주내로 한정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곳에 이렇게 많은 한식당이 한식을 미국에 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산(벌링톤) |
| 가주순두부(올스톤) | 서울설령탕(올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올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앤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리수 레스토랑(레먼스터) |
| 다빈(렉싱턴) | 야수(브루클라인) |
| 다오라스시(브락톤) | 영차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빠스시(올스톤) |
| 메주(서머빌) | 우리(알링톤) |
| 명동일번지(올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토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시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올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메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올스톤) | 코리아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빔(올스톤) | 한국가든(올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올스톤) |
| 사뽀로(뉴튼) | 젠320(브루클라인) |
| 사뽀로스시바베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617-254-465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애플워치를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중 2개를 골라 신청 용지에 적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중복 투표는 불가하며,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우편소인)까지 마감합니다.

후원: KFood with
BRICKPOP
Get WHOLE. SOME
Saint
AUGUSTIN
ASIAN CUISINE

KFood with
수불
새라면



보스톤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440 sf.
Two-level ranch home
Fully fenced in yard,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79,000
Sharon, MA
4 Beds, 2.5Baths, 2303 sf.
New septic system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20,0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512 sf.
84 Acre lot, 좋은 학군
조용한 주거환경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 Rental
\$2,950
Cambridge, MA
2 Beds, 1 bath, 1142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700
Lexington, MA
2 Beds, 2 baths, 1318sf.,
Kwang O. Kim 617-792-8615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안전하고 좋은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보통 주택 판매 / 상업 부동산 / 투자 부동산 / 렌탈 부동산 /
상업 부동산 / 호텔 / 리조트 / 임대 부동산 / 부동산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781-526-2416

Restaurant  \$47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Director of RE
 www.ganain.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son2323@gmail.com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30 July 31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권지의자랑거리
코리안 그릴(Korean Grille)
 업소탐방 297
코리안 그릴
 1429 Hancock St, Quincy MA 02169
 (617) 472-1006
 koreangrille.com

Welcome, **YTN** 한국 방송 3시 30분 TV 특별 사업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간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회비를 비교해 보세요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서비스
 방송3시와 케이블 합병 계약
 7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권 \$29.99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권지에서 한식의 맛을 대표하고 있는 '코리안 그릴(Korean Grille)'은 권숙현 사장이 5년 넘게 운영해온 한식 레스토랑이다.

더불어 즐길 수 있다. 최근 코리안 그릴의 스페셜 메뉴인 등심(Special Rib Eye)과 폭 찹(Grilled Korean Pork Chop)이 큰 인기이다. 불고기 소스양념이 밴 등심은 공기밥과 김치 외 8가지의 반찬과 함께 제공이 된다. 중국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는 폭 찹 역시 불고기 소스에 재어져 반찬과 소바면, 샐러드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오후 10시 30분까지며 일요일은 12시부터 오후 10까지다.

jham@bostonkorea.com

코리안 그릴은 백인 손님들과 중국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어 단골 손님들로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다. 권 사장은 "주인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더 만족해한다"며 오히려 자신도 더 편하다는 말을 덧붙혔다. 권 사장은 "한국 음식은 특별한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기에 감히 아무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며 한국 음식의 자존심을 표현했다.

이처럼 코리안 그릴은 다른 한식당들과 달리 보스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메뉴를 선보인다. 무엇보다 코리안 그릴은 주류 판매허가가 된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와인과 사케를 음식과 더불어 즐길 수 있다.



코리안 그릴은 돌솥 비빔밥과 김치제육볶음, 비빔냉면, 낙지볶음, 된장찌개, 대구찌개, 순부두찌개 등 수많은 기본적인 정통 한식들의 맛을 볼 수 있다. 특별히 권 사장이 불루힐에 가서 나물을 비롯해 고사리, 방아잎, 고비나물 등을 캐와서 자연적인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권 사장은 '열 종류의 나물이 들어가는 곱돌 비빔밥과 고비나물로 우려진 육개장은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라고 전했다. 한식을 제외한 일식으로는 스시, 사시미, 마키, 야키소바, 회덮밥 등 다양한 라면 또한 찾을 수 있어

권 사장은 "보스톤에 비교해 권지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한인들이 코리안 그릴을 찾아서 추억의 한식을 맛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리안 그릴은 레드 라인 퀴즈 센터 역에서 내려 행콕 스트리트 방향으로 2분 가량 걸으면 찾을 수 있다. 운전올 해서 오는 경우 레스토랑 건물 뒷편에 주차가 가능하다.

코리안 그릴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Sub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0PM, 달남목사 유영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요양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맹회	978-514-3399
한인학교총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곡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25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617-9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턴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유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양구정동영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e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영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리엄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의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스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스미덴탈그룹	781-273-2233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보석

국제보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레딩에 있는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에서 함께 일할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603-401-1581

매니큐어리스트 구함. 상당 후 렌트 or 이익 분배 가능. T. 617-331-1101

CSI 찰스타운 캠퍼스에서 국제 입학 담당자를 구합니다. http://csinow.theresumator.com/appl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Plymouth에 위치한 네일살롱 매매

3,000 SF.
8 페디큐어 체어
8 테이블
2 왁스 룸
Asking Price: 360K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세요
617 223 783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Amherst 3개 대학 근처 세탁소 팝니다. (16년간 운영, 주인 은퇴) (영주권 신청 가능) T. 413-549-3612

올스톤에 위치한 오피스 스페이스 서블릿 입주자 구합니다. T. 617-418-0784 (수잔)

N [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 [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 [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 [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 [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옷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 [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 [매 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 [매 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잇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업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원더걸스, 80년대 잡지서 튀어나온 듯한 핀업걸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원더걸스가 레트로 밴드로 변신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30일 0시 JYP공식 유튜브, SNS 계정을 통해 8월 3일 공개되는 정규 3집 앨범 'REBOOT' 타이틀 곡 'I Feel You'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1980년대 잡지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핀업걸 모습을 하고 있는 선미는 티저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레트로 스타일을 한 멤버들은 부풀린 헤어스타일과 과감한 보디슈트 스타일로 변신을 예고했다. 원더걸스 멤버들은 타이틀 곡을 제외한 수록곡의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80년대 프리스타일, 레트로 팝, 슬로우젯 등 다양한 장르를 자신들만의 스타일과 사운드로 재해석했다. 타이틀 곡은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1980년대 초 뉴

욕의 라틴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프리스타일 음악이다. 신스 악기들과 싱코페이션 기반의 화려한 리듬을 결합시킨 장르다. 원더걸스는 악기를 연주함과 동시에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원더걸스는 음원 공개 당일 쇼케이스를 통해 팬들과 첫 만남을 가지며 쇼케이스는 네이버V앱을 통해 생중계된다. ppbn@news1.kr

에이핑크, '쇼챔'이어 '엠카'도 접수 '눈물의 1위'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걸그룹 에이핑크가 MBC 뮤직 '쇼! 챔피언'에 이어 '엠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했다. 에이핑크는 30일 오후 6시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신곡 '리멤버'로 소녀시대의 '파티'를 제치고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날 에이핑크는 1위에 호명되자 "팬분들 감사드립니다"라며 "팬분들 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말을 잊지 못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멤버 보미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엠카운트다운'에는 갓세븐, 나인뮤지스, 디홀릭, 마망, 밍스, 베이비부, 블레이디, 비스트, 소나무, 스텔라, 엔씨아, 앤화이트, 에이핑크, 여자친구, 워너비, 유승우, 이기찬, 인피니트, 지혜라, 태진아, 포텐, 플레이백, 헬로비너스 등이 출연했다. aluem_chang@news1.kr



'암살' 500만 돌파 목전 성큼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암살'이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은 지난 29일 전국 1422개 스크린에서 49만3995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468만9988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이로써 '암살'은 지난 22일 개봉 이후 개봉 7일째인 지난 28일 400만 누적관객수를 넘어선 데 이어 곧바로 개봉 8일째에 빠르게 500만 누적관객수 돌파를 내다보게 됐다. 하지

만 개봉 9일째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이 개봉되는 만큼 전일대비 관객수 증감률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암살'은 1930년대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리는 영화다. 배우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이경영, 최덕문, 조진웅 등이 출연했다. aluem_chang@news1.kr



빅뱅, 다섯 남자의 아련한 눈빛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빅뱅 신곡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포스터가 공개됐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30일 오전 10시 공식블로그를 통해 빅뱅이 8월에 선보일 'MADE SERIES'의 네 번째 앨범 'E'의 두 번째 포스터를 게재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빅뱅 멤버들의 클로즈업된 눈이 담겨있다. 또한 곡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감성적인 옐로화이트 배경과 다섯 멤버들의 아련한 눈빛이 보는 이들의 시선

을 사로잡는다. 특히 빅뱅은 지난 24일 8월에 공개되는 첫 번째 신곡 '떨어'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는 '떨어'와는 상반된 분위기로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빅뱅은 지난 5월부터 매달 'MADE SERIES'의 'M', 'A', 'D' 앨범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lee1220@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7월 20일 ~ 7월 26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4.9%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4.0%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20.5%
4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6.7%
4	KBS1	KBS9시뉴스	16.7%
6	KBS2	해피선데이	16.0%
7	MBC	무한도전	15.2%
8	KBS2	개그콘서트	14.5%
9	KBS1	가요무대	13.5%
10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2.9%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SBS	월화드라마(상류사회)
6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7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8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9	SBS	드라마스페셜(가면)
10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와리가리	혁오 (hyukoh)
02	위잉위잉	혁오 (hyukoh)
03	양화대교	Zion.T
04	SHAKE IT	씨스타
05	Remember	Apink
06	심쿵해 (Heart Attack)	AOA
07	Oasis (Feat. ZICO)	Crush
08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09	PARTY	소녀시대
10	IF YOU	BIGBANG

숫자 퍼즐 (Sudoku)

				2		9	3	8
9	5	6	1					
	8		9					1
7			4					
	6		7	1	2		4	
					8			6
8					4		9	
					9	1	7	3
3	9	7		6				

8월 2일 - 8월 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상황이 호전되면서</p> <p>● 운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잘 보이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상황이 호전되면서 들어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부탁해 놓았던 돈을 받게 되고 밀려있던 수금도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혼담을 진행하기에 아주 좋으니 초혼이든 재혼이든 적극 추진해 보세요. 단,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해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5, 8일 길일. 2, 7일 주의.</p>	<p>소띠 예상하고 기대한 만큼</p> <p>● 운수: 의욕이 저하됩니다. 일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추진하던 것을 중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한 만큼 수입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한숨을 쉬기보다는 더 노력하고 강한 의지로 버텨야 합니다. ● 애정: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4, 7일 길일. 2, 8일 주의.</p>	<p>범띠 때가 허락하지 않으니</p> <p>● 운수: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때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일은 무난하게 진행되겠지만 그 외의 일들은 시기적으로 아직은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마세요. 일처리에 있어서 순발력을 잘 발휘하면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가 인내와 양보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 7일 길일. 3, 6일 주의.</p>
<p>토끼띠 돈은 들고 도는 것</p> <p>● 운수: 뒤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나 행동을 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 금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들고 도는 것이기에 돈인 것입니다. ● 애정: 상처받고도 상처받지 않는 척하기 때문에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6일 길일. 4, 7일 주의.</p>	<p>용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p> <p>● 운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주어지는 뜻밖의 선물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법입니다. ● 금전: 지난날에 기울인 노력으로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 애정: 황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4, 6일 길일. 2, 5일 주의.</p>	<p>뱀띠 인과의 법칙을 생각해야</p> <p>● 운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계획은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인과의 법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성과는 당연히 경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애정: 비록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5, 7일 길일. 3, 6일 주의.</p>
<p>말띠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편이</p> <p>● 운수: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편이 이로운 것입니다. ● 금전: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츰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군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변해야 상대도 바뀌고 내가 처한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 6일 길일. 4, 7일 주의.</p>	<p>양띠 좀 더 기다리도록</p> <p>● 운수: 집안에 노부모가 계시면 자주 방문하도록 하세요. 뒤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알을 까기도 전에 병아리부터 세고 있군요. 아직은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때이니 좀 더 기다리도록 하세요. ● 애정: 한번 화가 나면 그동안 자신에게 좋지 못하게 남아 있는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운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p>	<p>원숭이띠 나무가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p> <p>● 운수: 마치 추운 겨울에 나무가 꽃을 막 피우려고 하는 것처럼 아직 때가 일러서 자신의 뜻이 펼쳐고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금전: 매일매일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주말쯤에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르겠습니다. ● 애정: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하는 말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p>
<p>닭띠 돌파구를 찾게 될</p> <p>● 운수: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과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뜻을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전: 자금 회전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단지 좋다는 감정만으로 막연히 끌리는 느낌만으로 두 사람 사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발전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p>	<p>개띠 생활이 차츰 밝아지고</p> <p>● 운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갈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 애정: 막막했던 상태에서 마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차츰 주변 환경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6일 길일. 5, 8일 주의.</p>	<p>돼지띠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많은</p> <p>● 운수: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많은 상태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금전: 매순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쉬울 것이지만 공연한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최선일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 7일 길일. 3, 6일 주의.</p>

배용준, 박수진에 무릎 꿇고 로맨틱 프로포즈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배우 배용준이 박수진과의 결혼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배우 배용준은 결혼 당일인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식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가족 여러분의 염려와 축복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며 "하지만 당신들께 배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도 잘 해내겠습니다. 행복한 모습 자주 전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배용준이 공개한 사진에는 예비신부 박수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하고 있는 배용준의 모습이 담겼다. 배용준은 박수진의 손을 잡고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박수진은 몸에 밀착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배용준을 사랑스럽게 내려다 보고 있어 시선을 모은다.

배용준 박수진 사진에 누리꾼들은 "배용준 박수진, 정말 로맨틱해



"배용준 박수진, 배용준 이런 모습 처음이야", "배용준 박수진, 정말 낭만적", "배용준 박수진, 배용준 정말 사랑하나봐" 등 반응을 보였다.

배용준과 박수진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웨라톤 그랜드

위커했 애스톤하우스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양가 가족 및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외부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aluem_chang@news1.kr



백종원 '마리텔' 일시 하차, '집밥 백선생'은 잔류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백종원 '마리텔' 일시 하차 소식에 '집밥 백선생' 잔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MBC 측은 26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출연 중이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에서 일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백종원씨의 의사를 존중해 이번 주 생방송 녹화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백종원의 녹화 불참은 일시적인 것일 뿐, 완전한 하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tvN '집밥 백선생' 측은 백종원의 잔류 여부에 변동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한식대첩 시즌3'는 종영까지 2회 방송분을 남겨놓은 만큼 녹화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원의 '마리텔' 잠정 하차는 최근 겪고 있는 가정사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도 해석된다. 백종원 아버지 백승택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유성구의 한 골프장의 20대 여성 캐디를 골프장 근처로 불러내 가슴 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마리텔'은 '집밥 백선생'과 달리 누리꾼들과의 쌍방 소통이 결합된 포맷의 프로그램인 만큼, 악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차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 마리텔 일시 하차 소식에 누리꾼들은 "백종원 마리텔 일시 하차, 정말 안타깝다", "백종원 마리텔 일시 하차, 이제 무슨 재미로 봐", "백종원 마리텔 일시 하차, 빨리 복귀해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혁오밴드 오혁 "표절 하지 않았다, 음악적으로 떼떽해"

(서울=뉴스1) 권수빈 기자 = 밴드 혁오의 멤버 오혁이 표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오혁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멘션을 받았습니"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미국 밴드 비치 파스스가 혁오의 음악이 자신들의 노래 두 곡을 섞어 만든 것 같다고 남긴 트윗 내용을 게재했다.

혁오는 "저는 제 음악에 대한 양심과 자

부심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곡을 쓴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며 "평생 음악을 하는 게 꿈인데 베껴 쓴 걸로 인정받을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음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표절을 하지 않습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정규 앨범도 없고 1년 이 채 되지 않은 신생 밴드이지만 정말 감

사하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분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음악적으로 떼떽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고 자부했다.

오혁은 "저희를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고 덧붙이며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ppbn@news1.kr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소시' 지금의 소녀시대가 궁금하다면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소녀시대가 멤버 각자 개성이 살아있는 리얼한 모습을 예고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온스타일 '채널 소녀시대'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스케줄 때문에 불참한 유리를 제외한 소녀시대 멤버 7명과 오관진 PD가 참석했다.

'채널 소녀시대'는 소녀시대 8명 멤버들이 직접 기획,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자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콘셉트, 평소 다뤄보고 싶었던 분야를 주제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이게 된다. 오관진 PD는 "멤버들이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팬들이나 시청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어필을 해보자 싶었다"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색깔을 밝혔다.

소녀시대는 '헬로 베이비' 이후 오랜만에 단체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티파니는 "멤버들끼리 단체로 하는 그림을 원하고 있어서 라이브한 모습을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의 소녀시대를 담은 리얼리티였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았다"며 현재의 소녀시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7월 4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SBS | 상류사회 |
| 6 | MBC | 딱 너 같은 딸 |
| 7 | KBS | 가족을 지켜라 |
| 8 | MBC | 이브의 사랑 |
| 9 | SBS | 가면 |
| 10 | MBC | 화정 |

티보플레이 7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E&M | 채널소시 |
| 2 | CJ E&M | 가이드 |
| 3 | KBS | 여야택시 |
| 4 | CJ E&M | 주문을 걸어 |

티보플레이 7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극비수사 | 김윤석/유해진 |
|---|------|---------|

'극비수사', 사주팔자로 아이 찾은 78년 실화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 '극비수사'는 1978년 유괴된 아이를 사주로 찾아 대한민국을 떠돌게 만든 '정효주양 납치사건'을 바탕으로 형사와 도사의 숨겨진 33일의 여정을 그린 영화다.

'1978년 실제 이야기'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어 유괴된 아이를 찾기 위해 점술집을 전전하는 한 어머니와, "보름째 되는 날 연락이 올 것"이라는 도사 김중산(유해진)의 섬뜩한 사주팔자가 그려진다.

이어 사건을 말지 않으려는 형사 공길용(김윤석)은 "우리 아들이 유괴 당했어도 그런 말 할 거냐"는 아내의 다그침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아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공길용과 김중산이 함께 범인의 행

적을 추적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영화 '극비수사'는 영화 '친구', '친구2', '똥개', '태풍', '통증' 등을 연출한 광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명품 배우' 김윤석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았다.

한편, '정효주양 납치사건'은 부산의 한 재력가의 초등학교 딸이 두 번 연속 납치된 사건으로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죄과는 관대하게 다뤄 테니 아이만 돌려달라"는 특별담화까지 발표할 정도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차 범행 5일 만에 경부고속도로 경주톨게이트 인근에서 생존한 상태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soho0901@news1.kr



TBO PLAY

보스톤권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엘리트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95 MI
- 3. Belmont 엘리트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라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통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박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박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프 매케:**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물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8회

돌아가는 길...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목적지를 향해 특별한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가는 길 그 길에서 문득 오렌지 컬러 사인 판을 가끔 만나기도 한다. Construction! →Detour!하고 적힌 사인판을 말이다. 어느 날 하루 비닷가를 가려고 목적지를 향하는데 공사로 말미암아 돌아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길이 막혀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곳.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분 좋은 나 홀로만의 시간을 만나고 혼자서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는 멋진 공간을 선물로 얻었다. 때론, 우리네 삶도 이렇겠지 하면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서 오롯하게 깊은 생각에 머물렀다.

가던 길 멈추고 만나절을 그곳에서 이리저리 바라보고 훑어보고 만나고 만져보고 하다 보니 어둑어둑 땅거미 오르는 해거름의 때를 만났다. 그래, 사는 일도 이렇게 계획하거나 작정하거나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님을 새삼 또 깨달았다. 정해놓은 목적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은 마음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만나고 느끼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미리 정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고즈넉한 풍경과 공간은 나에게 진정한 낙하고 풍성한 누림을 선물로 준 것이다. 그

곳을 다녀온 후에도 눈을 감으면 내심 행복해지는 이 기분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네 사는 일도 이렇 것이라곤, 우리네 긴 인생 여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넉넉함이 차오른다. 이처럼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차오르는 마음의 조급함이나 보챌이 하나둘 놓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필요치 않은 것들로 자유스러울 수 있다면 그 삶은 그 인생은 축복받은 사람일 게다. 때로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보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그 무엇을 얻었던들 그것이 행복과 비례한다는 답은 없다. 조금은 늦더라도 때로는 돌아가며 만나는 일들 속에 행복이 숨어있기도 한 까닭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작은 쉼터에서부터 시작해 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 목표는 세워야겠지만, 자신의 주변은 돌아보지 않고 그 목표만을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는 삶처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은 없을 것이다. 혹여 그 목표에 다다르

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그 목적지 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였다면 그 과정처럼 멋진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말이다.

때로는 바쁜 마음에 돌아가라는 표지판이 나오면 갑자기 속상한 마음이 든다. 곧장 뚫린 길을 갔더라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일찍 도착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으리란 그런 아쉬운 마음에 속상함과 불쾌함이 교차하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혀 돌아가라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가다보면 그동안 바쁜 걸음으로 움직인 탓에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오밀조밀 여겨지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때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더 빨리 더 많이 가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 중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길이 막혀 돌아가야 하는 일처럼 우리네 인생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닥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막

다른 길목에서 발목이 잡힐 때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긴 인생 여정에서 때로 실뻔 하나 들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그 칠흑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영영 가시지 않을 것 같은 때 진정 기다리는 새벽은 오지 않을 것 같은 때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여명의 새벽이 멀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돌아가는 길'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일깨워주는 시간일지도 모를 일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서가지 않으면 뒤떨었다고 생각한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돌아가는 길'을 만나면 당황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장 난 길이 빠른 길이며 목적지에 빨리 다다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곧장 난 길을 통해 빨리 가서 목적지에 이르러 도대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일까. 작은 삶 속에서 그리고 긴 인생 여정 중 '돌아가는 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빠른 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한담객설閑談客說: 삼시세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다만 그래도 아내에게 미안하다. 내게 하루 세 끼는 벅하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나면, 몇 시간 남지 않는데, 하루 세끼를 챙겨 먹으려니 하루종일 먹는 일 뿐인 듯 싶은 거다. 수저를 놓고 서너 시간 후면 또 먹어야 하니 말이다. 게다가 중간 중간에 커피며 과일이며 넣어 주어야 한다. 입과 위장이 쉴 날이 없다. 하루 두 끼만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게다. 그렇다고 한번에 많이 먹어도 없는 일. 프랑스에 일 때문에 간 적이 있다. 방문했던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회의를 끝낸 다음, 식당으로 몰려갔다. 음식은 더웠고, 음식 향은 깊고 두터웠다. 같이 주문한 와인맛은 음식과 잘 어울려졌다. 오고가는 대화는 기쁘졌는데, 모두 음식과 음료가 뒷받침했더라. 문제는 점심시간이 너무 길었다. 무려 세 시간이 훌쩍 넘어선 게다. 초대 한 이가 말했다. '회사에 돌아가, 가방 챙겨서 퇴근한다'.

사족으로 붙인다. 한국에선 보이스 피싱이 창궐하는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다름없다. 나도 한번 괴이한 전화를 받았다. 처음 당한 일인지라 당황했을 적에, 다행히 저쪽에선 별말은 없었다. '고객님, 당황하셨지요?' 라는 따위의 말 말이다. 내가 한마디 할 걸 그랬다. '밥은 챙겨 먹고 하는겨?' 라고 말이다. 내 옛친구가 말했다. '한 끼라도 건너 뛸 수 없다.' '인

생에서 건너뛴 그날 그 끼니는 평생 다시 찾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끼니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말이 걸작인데, 먹는 자처의 능동적인 사고방식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끼니는 건너치 말아야 한다. 밥이 제일의 보약이라 했던가.

글쓰는 김훈이 자주 하는 말이다. '먹고 사는 일에 적당히 긴장하면서 사는 게 건강한 삶이다.' 밥은 신성한 것이고,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일 게다. 식솔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야 한다는 말인즉, 그러나 저러나, 밥값은 못해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그래야 밥값하는 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게다. 밥은 쌀나무(?)에서 나온다. 한 톨 쌀알도 귀하다. 그렇게 배웠다.

쌀 한 톨 앞에 무릎을 꿇다
고마움을 통해 인생이 부유해진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쌀 한 톨 안으로 난 길을 따라 걷다가
해질녘
어깨에 삼을 걸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쌀 한톨, 정호승)

'집에 들어가거나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 3:20)

한동안 습하던니, 흰구름이 떴다. 푸른 하늘과 사뭇 조화롭다. 더운 여름에 끼니는 챙겨 드시고 계신지? 더위엔 삼계탕이 일품일 텐데, 뜨겁고 매운 육개장도 그럴듯 할게다. 건강을 각별히 챙기시길 바란다.

텔레비전에 연예 프로중 '삼시세끼'가 있다. 그저 먹는 이야기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을 해먹고, 늦은 점심을 해 먹으며, 저녁을 준비해 또 먹는다. 끼니 중간에 잠시 텃밭에 나가 일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고 별로 다르

지 않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 챙겨 먹는다. 아아, 먹는 일이며, 밥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벌여 온 밥을 먹는 것도 벅하다. 뭐 그렇다고 내가 거식증이 있는 건 아니다. 오해 마시라. 삼시세끼 티비 프로그램을 보며 내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자주 말씀하시던 터. '오늘 저녁은 또 뭘해 먹냐?' 하긴, 하루세끼 챙겨 줘야하는 건 만만치 않았을 게다. 아내도 같은 말을 입에 담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가 아직 일식-食이



KCON
ALL THINGS HALLYU

Presented by
TOYOTA
Let's Go Places

북미 최대의 한류 컨벤션 x 콘서트!
NY 8월 8일
Prudential Center, Newark NJ

- AOA • Girls' Generation
- Teen Top • VIXX
- and more special guests!

티켓 절찬 판매중! KCONUSA.com

부스 모집중 Contact: 212 574 4414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4.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경쟁 (3)

남동부지역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과의 갈등 (계속)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1715년부터 1717년까지 야마시(Yamasee)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 전쟁은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와 야마시 족을 비롯한 미국 인디언 부족 사이에 발생한 전쟁으로써 전쟁에 참가한 인디언 부족은 야마시 족 외에 크리크 족, 체로키 족, 치카소 족, 카토바 족, 애팔라치 족, 애팔라치코라 족, 유치 족, 사바나 강 쇼니 족, 콘가리 족, 웨스호 족, 피디 족, 케이프 페어 족, 체로 족 등 다른 많은 부족들이 참가했다. 이 전쟁으로 1715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1716년에는 체로키 족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편으로 돌아서서 크리크 족을 공격했다. 처음에는 다른 여러 원주민 부족들과 같은 편에 서서 영국 정착민을 상대로 싸우던 체로키 부족은 전쟁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영국 편으로 돌아섰는데 영국 측으로서는 체로키의 변심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야마시 전쟁은 미국 식민지에서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이라는 '필립 왕 전쟁' 보다 더 참혹했다는 평가도 있다.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었으며, 전쟁에 가담한 인디언 부족들도 부족별로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의 원인들 중에는 유럽인들에 의한 토지 잠식, 무역상들의 횡포, 인

디언 노예무역, 사슴의 고갈, 부유해지는 유럽 출신 개척민들과는 대조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인디언들, 쌀 재배면적의 확대, 영국과의 무역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루이지애나에서의 프랑스인들의 영향력, 스페인령 플로리다와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디언 동맹, 인디언 부족 사이의 권력 투쟁, 점점 긴밀해져가는 부족 간 의사소통 등이 있었다.

세위(Sewee) 부족의 비극
영국인 탐험가 로슨(John Lawson)은 1709년 런던에서 'A New Voyage to Carolina'를 발행하였다. 그는 1700년 말부터 1709년에 런던으로 돌아갈 때까지 캐롤라이나 내륙 깊숙이 탐험하여 두 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고위 공직을 직접 맡아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들은 매우 슬픈 인디언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산티 강어귀에 살고 있던 세위 인디언 부족은 유럽인들과 모피 등을 교역해 왔는데, 어느 날 그들은 그들이 할값에 넘기고 있는 모피가 유럽에서는 몇 십 배의 가격으로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피를 캐롤라이나에서 모피 중개상에게 팔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직접 팔게 되면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은밀히 대형 카누를 만들어 유럽의 배들이 나타났던 방향으로 대서양 바다를 나섰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진 카누도 먼 바다의 파도를 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터이고 아마도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떠났기 때문에 오래 지나지 않아 조난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더욱 불행스러웠던 것은 일부 인디언들은 유럽인의 선박에 의하여 가까스로 구조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서인도제도 노예로 팔렸다. 캐롤라이나에 남아있던 많지 않은 세위족들도 전염병 등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다른 부족으로 흡수됨으로써 세위족의 역사는 끝나게 되었다고 한다.

노예 사냥
캐롤라이나 식민지의 경제적 기반은 담배 농업, 벼 재배, 모피 교역 등이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다. 원주민을 잡아서 노예시장에 내다 파는 사업 또한 크게 성행하였다.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는 재식농업이 크게 발달하였던 서인도제도에서 특히 노예 수요가 많았으며 캐롤라이나 남부지역에서 쌀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벼농사의 특성상 많은 노예가 필요하게 되었다. 백인 노예 사냥꾼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일부 인디언 부족은 다른 약한 부족을 공격하여 노예로 잡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노예 사냥 초기에는 해안가에서 이루어졌으나, 점차 자원이 고갈되면서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인디언들을 노예로 잡아 노예시장에 내다 팔았다. 캐롤라이나 식민지 총독이자 노예 무역상이던 무어

(James Moore)는 1704년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당시 스페인 영토였던 플로리다를 침략하여 한꺼번에 6000명 이상의 인디언을 포로로 잡아와 노예시장에 내다 팔았다. 1730년쯤부터는 더 이상의 인디언 노예공급이 어려워지자 아프리카 흑인노예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된다. 그 때부터 노동집약적인 농업이 중심이 된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 노예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우가 심해서 1860년의 통계에 의하면 백인 인구는 29만 명이었던 반면 흑인은 41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 경쟁으로 갈라선 원주민들
프랑스도 영국과 비슷한 시기인 1600년대 초부터 북미 대륙에 식민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영국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역부터 개척해서 북쪽과 서쪽으로 식민지 영역을 확장해 나간 반면에 프랑스는 캐나다의 세인트로렌스 강 어귀로부터 시작하여 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진출하여 오대호에 이르렀고 다시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남하하여 멕시코 만까지 이르게 되었다. 유럽의 두 열강이 동시에 영역확장을 추진하다 보니 양측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분쟁은 주로 양 세력이 부딪쳤던 메인 주, 뉴욕 주 북부, 오대호 인근과 펜실베이니아 및 버지니아 서부에서 발생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의 태권도와 김운용(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당시에는 김용채 (1967년 1월 30일 ~ 1971년 1월 16일 재임)가 회장으로 있었다. 박종규는 대통령 경호실장이었고, 김종필은 민주공화당 총재 수석상임고문으로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이었다. 현존하는 인물에 관하여 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뒤로 미루고 그가 태권도계에 발을 들이려 놓으면서 맡은 직책과 관련된 공적(公)인 업무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가 쌓은 공적(功)과 저지른 과오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1)

김운용은 1971년 제7대 대한태권도협회의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태권도계에 들어왔다. 그 후 국기원을 건립하여 초대 원장,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여 총재를 하면서 세계태권도계를 장악하였고 그의 적극적인 정치외교 수완으로 태권도를 세계화 하였다. 태권도가 세계화 되는데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태권도를 지도한 사범들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김운용이 '자아 수련과 호신용의 무도'로 머물러 있던 태권도를 경기화/스포츠화 시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 태권도의 세계화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태권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를 전반에 걸쳐 영향력

을 발휘하면서 단연 한국의 스포츠를 격상시켰고, 우리의 불모지였던 국제스포츠계에서 '세계태권도연맹' 뿐만 아니라 'GAISF(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국제 경기 연맹 총연합회)' 회장과 IOC위원으로서 보인 그의 리더십과 정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그가 전공한 정치외교학을 마음껏 발휘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김운용은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추대되기 전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을 거쳐 학술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그는 1931년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김학도는 조선민보사 기자였으며, 그는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과 스포에 남다른 소질을 발휘했고, 중학교 때는 스케이트, 육상, 복싱, 유도, 가라데 등 여러가지의 종목을 배웠으며 학예회에서 피아노 연주도 할만큼 예능의 소질과 함께 예체능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특히 영어에는 자신이 있었으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그는 어학에도 재능을 발휘하여 후일 6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탁월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스포츠계

에 입신(入身)하여 IOC부위원장까지 입신(立身)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였고, 동송동의 서울대학교에 자주 가서 미국들과도 대화하였으며 늦은 밤에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터득한 지식으로 영어시간에는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의 영어교육의 길잡이가 되어준 은사인 외교관 흥재익의 영향이 가장 컸다. 흥재익은 김운용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그 역시 흥재익과 같이 외교관이 되기 위한 꿈을 키우면서, 1949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은 외교관이 되려는 희망을 안고 교정에 들어선 젊은 김운용의 꿈을 무산시켰다.
131) 참고문헌: '세계를 향한 도전'(김운용, 2002, 연세대학교 출판부), '태권도 - 역사, 정신, 철학'(안용규, 2000, 21세기사), '스포츠와 권력: 김운용, 그 이후'(안용규, 2008년5월5일, 태권마루), '태권도 황제' 김운용 날개 꺾인 30년 신화'(육성철, 신동아 2001년12월호), '이종우 국기원 부원장의 태권도 과거' 충격적 고백!(육성철, 신동아 2002년4월호) 등 김운용이 몸담았던 기구의 역사(略史)와 기타 언론매체.

티켓판매중

WWW.BOSTONSEAFOODFESTIVAL.ORG



제 4 회

보스톤 해산물 축제



BOSTON SEAFOOD FESTIVAL

2015년 8월2일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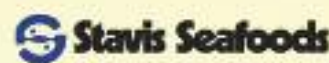
역사적인

보스톤 어항

오전11시부터오후6까지 212 NORTHERN AVE. BOSTON, MA

보스톤에서 가장 특별한

- 해산물 판매대들 // Harpoon 맥주 판매대 // 요리사 시연회 //
- 교육지 들과 강연자 들 // 종일 랍스터 요리
- // 장인들과 기능인들 // 껍질 벗기는 이들의 경쟁 //
- 생선자르기 경연대회 // 현장음악
- // 어린이들을 위한 오락!



보스톤 코리아



F.J. O'HARA & SONS, INC.
7 The Kennedy Avenue, Dorset, MA 0192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명(銘)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명 칭호니라
The Lord God Almighty, the Lord is His name of renown!” - 호세아 12:5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명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Your name, O Lord, endures forever, your renown, O Lord, through all generations.” - 시편 135:13

롯데 그룹의 재산권 다툼이 온통 한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한다.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은 25일 일본에서 귀국했다.

아버지 신격호(93) 총괄회장을 동원, 동생인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일본롯데 홀딩경영권을 되찾으려다 실패한 사람같지 않았다.

동빈 씨가 일본에 남아 주주관리를 하고 있는 한편 동주 씨의 귀국으로 가족들을 상대로 경영권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국내 5위 재벌인 롯데그룹에서 후계 쟁탈전에서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이 경영권 일선에서 밀려났다. 후계자인 아들이 경영을 넘겨보는 형제뿐 아니라 창업주까지 밀어내는 사례가 발생할 셈. 발단은 창업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지난 27일 일본 롯데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

신(幸)전 부회장은 다른 친족들과 함께 몰래 부친을 일본으로 모셔 간 뒤 동생 신동빈회장을 포함 일본 롯데 홀딩스 이사 6명을 전격 해임시킨 것. 일본 롯데 경영권을 맡았다가 작년 말부터 잇따라 모든 후계구도에서 물러나며 후계구도에서 탈락했던 장남이 고령의 부친을 앞세워 경영권 탈환을 꾀한 것이다. 이에 동생 신동빈 회장 측이 다음날 역공에 나서 상황을 뒤집은 것. 일본 롯데 이사들은 28일 새벽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날 신격호 회장의 이사 해임결정을 무효화시켰다.

이어 창업주가 대표이사직책을 내려 놓고 회사직제에도 없는 명예회장제를 신설해

그 자리로 물러나게 했다. 한국 롯데는 연간 매출 83조원, 국내 재계 5위, 일본 롯데는 매출 6조원으로 한국 롯데의 14분의 1에 불과해도 지분구조상 경영권 확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이번에 한국과 일본 롯데의 경영권 확보의 열쇠를 쥐고 후계다툼에서 일단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복잡성, 불투명성은 경영권 분쟁은 재연의 여지가 높다. 얼마 전까지 차남의 손을 들어줬던 신격호 회장이 갑자기 장남 편으로 돌아섰으니 90대 중반의 고령맞일까?

과거 현대그룹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정상적 판단이 부족해 정몽구, 정몽헌 회장들이 서로 부친의 뜻을 내세워 상대방을 해임시키며 괴투성이 후계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으니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롯데그룹 사태는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는 한국 재벌의 추한 면을 또다시 드러낸 셈!

삼성, 현대, 한진,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효성 등 거의 모든 재벌그룹에서 총수일가와 형제들이 재산 경영권 다툼을 벌였었다.

국민들이 비난한 줄도 모르고 공개석상에서 부모형제를 비난하며 맞소송(訴訟)들을 일삼았었다.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 가족기업들은 소유주 일가의 경쟁권 참여를 제한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능력을 인정받은 소수의 가족만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주주 일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 감시시스템이 있어서다.

해서 4.5 대를 이어가면서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족기업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별로 없다.

오히려 총수 일가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단결해 회사를 더 키우고 종업원 복지혜택을 증진하며 가족 경영을 살리는 기업들이 많다.

모든 비즈니스가 혼자 할 수 없고 협력적 복합기업성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銘명: 刻以識事각이식사: “새길 명”
금쇠 금+名이름 명이 합성된 글자.

해서 얼핏 사람들 생각에 “내 이름이 금(金)보다 귀해?” 이렇게 물질적 가치관으로 쉽게 여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롯데그룹의 예화가 “이름값(名價)”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하늘나라의 아이디(ID).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 마태복음 6:9,10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접촉이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늘식구(食口)’가 된 증거다.

하여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기림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表號)니라: God also said” To Moses, “Say to the Israeli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the name by which I am to be remembe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출애굽기 3:15.

바로 여호와 이 말씀 좇아서 “이름(名)이 銘(명)”으로 시편 135:13과 호세아 12:5 두곳에 金名이 기재되어 있다.

金名: 刻以識事(각이식사; 새길명)으로 “하나님 이름을 따라 “金名; 황금 같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야 ‘확실한 하나님 식구’가 된다.

이 金名은 확실히 접근하는 방법(方法)은 “너희가 내(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하나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so that the Son may bring glory to the Father. You may ask Me for anything in My name, and I will do it. - 요한복음 14: 13,14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을까?

金名은 황금을 뜻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식구가 바라는 모든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金名)으로 준비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천국의 아파트까지.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이노피(Enop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탈춤, 부채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300 (one child)
\$560 (two children)
\$75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8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12 2015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물병, 스낵

27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5-2016 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전지현 · 이정재 · 하정우 그리고 <도둑들> 최동훈 감독
모두를 흥분시킬 최강의 화제작이 온다!



★★★★★

압도적 예매율 1위!

박스오피스 1위!

최고의 이야기꾼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핫'한 차기작!
초호화 캐스팅! 캐릭터 자체가 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열연!
제작비 180억! 블록버스터급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

ASSASSINATION

8월 7일 대개봉

REGAL Cinemas Fenway 13 & RPX

201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Tel. (617) 424-611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WWW.ASSASSINATION-THEMOVIE.COM HITKMOVIE



이 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3) 주식시장 하락

최근 주식시장이 커다란 폭으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도 그리스 재정문제와 중국 주식시장 폭락에 대한 기사로 투자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우 존스 18,200에서 17,500 하락은 700 포인트이지만 실제 변화는 5%도 되지 않습니다.

1957년부터 주식시장 재조정(correction)은 평균 1.5년마다 일어났습니다. 주식시장 재조정이란 주식시장이 10% 하락을 뜻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10% 이상 변한 적은 2011년도로 19%가 내려갔습니다. 재조정이 평균 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는 주식시장이 장기간 상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하락장세(Bear Market)는 주식시장이 20% 이상 내려갈 때를 말합니다. 1929년부터 하락장세는 25번이 일어났고 약 10개월 동안 지속하였습니다. 하락장세의 평균 폭락 비율은 35%였고 가장 큰 폭락은 62%였습니다. 주식시장 20% 이상 하락은 3.4년마다 일어났으며 지난 마지막 하락장세

는 2009년도였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6년 계속 상승세이므로 하락장세가 일어나는 평균에 비해 훨씬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하락 20%는 다우 존스 18,000에서 14,400으로 떨어짐을 말합니다. 무려 3,600 포인트 하락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 준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월스트리트에 이름이 잘 알려진 전문투자자 윌트니(Meredith Whitney)의 헤지 펀드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Meredith Whitney shuts her hedge fund, 6-10-2015, WSJ). 윌트니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식선별가(stock analyst, Oppenheimer Co)로 일하면서 씨티은행(Citigroup)이 폭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일주일 후 말한 대로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씨티은행 전문경영책임자(CEO)도 일주일 후에 사임했습니다.

그 후 윌트니는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전문가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

만두고 본인이 헤지펀드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가 미래를 예측한 투자전문가의 실력(?)을 믿고 새로운 헤지펀드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윌트니는 헤지펀드를 운용하며 새로운 예측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주정부 채권(municipal bonds) 시장의 폭락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여러 번의 잘못된 투자 예측으로 결국에는 운용했던 헤지펀드를 포기한 것입니다.

주식시장 재조정과 하락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주식시장 예측이 맞았다면 이것은 우연(luck)히 맞았을 뿐입니다. 물론, 예측을 말한 사람은 기술(skill)이 있어서 맞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소위 투자전문가("guru")라는 사람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한다면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 세(3) 개 대학이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등의 이유로 뇌에 손상된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들과 도박 게임을 실험했습니다. 결과

는 뇌가 손상된 그룹이 정상적인 그룹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내었다는 연구입니다. (Investment Behavior and the Negative Side of Emotion, Stanford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Iowa, 2005)

정상적인 그룹, 즉 일반 투자자는 욕심과 두려운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시장에선 현금을 보유했다면 하고 상승하는 시장에선 자산 전부를 투자했다면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감정 때문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성격이며 이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과거가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제대로 설정된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이유입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법 <Expectation of Privacy>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 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월 세 없이 개발되는 갖가지 첨단 기술과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 관련 법안' 과 '사생활(Privacy)' 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전역 공항에 설치된 전신 스캐너, 무인기 도입, 원치 않는 장면들을 포착한 구글 Street View는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공항을 이용하실 때, 'Strip search' 논란이 되었던 전신 스캐너를 통과한 경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글 지도에 올라가 있는 우리 집 사진을 확인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구글 Street View를 통해서 종종 범죄 현장, 불륜 현장 또는 민망한 모습의 사진이 발견되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 것과 유튜브에서 해변이나 집에서 나체로 일광욕 중인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경우를 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뉴욕의 한 사진작가가 '이웃들' 이라는 제목으로 유리벽으로 되어있는 럭셔리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고 그 사진들을 전시 및 판매하는 사진전을 개최

하여 반발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현상 속에 우리에게 '사생활 존중' 또는 '사생활 침해' 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해졌으며,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주와 연방법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령 및 케이스 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리는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미연방 헌법의 어느 곳에도 '사생활 권리(Right to Privacy)' 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연방 헌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인의 사생활 권리에 포함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생활 권리는 미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 권리는 미연방 대법원이 헌법상 가장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65년, Griswold v. Connecticut 판결문에서 사생활 권리가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정 헌법 제 1, 3, 4, 5조 항의 '주변부(penumbra)' 에 포함된 기본권으로 해석하였고 현재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토대로, 사생활 권리 및 사생활

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그중에서도 '합리적인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는 헌법 조항 제 4조 항에 포함된 압수/수색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와, 사생활 관련 민사사건 진행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행위나 정보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회의 객관적인 기준에 빚대어서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라고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기대' 는, 그 행동을 할 당시 그 개인이 사생활/개인 정보 보호를 받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로 창문을 닫고 대화를 할 때는, 충분히 그 대화 내용의 집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생활이 지켜질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은 객관적/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큰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요원이 첨단 도청 장치를 외벽에 장착하여 마약 밀수에 관한 대화를 듣고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 모두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기에, 그 정보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반대로 김 씨라는 사람이 집 앞에서 나체로 서 있다가 구글 Street View에 사진이 찍혀 인터넷에 올려진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김 씨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인 것 일면서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도에 내어 놓은 쓰레기나, 출입 금지 사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져 있지만 마리화나가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이는 뒷마당이나, 비행 중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보일만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가 있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보스톤 한인회 "신명나는 한인사회 만들기 제2탄"



Let's go! 보스톤 한인회

광복 70주년 기념

한미 연합 체육대회 & 야유회

본 행사는 한인사회가 중심이 된 한미 커뮤니티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 입니다.

보스톤한인회에서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하나되는 보스톤 한인사회를 위해 한인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인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하여 하나되고 함께 나누어 행복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해방둥이(45년 생) 특별초청

광복 70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에 45년생 해방둥이를 특별 초청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 기념행사 만세삼창 선창)

**참가자 전원에게
절전형 LED전구와 멀티탭을 드립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한미 연합 체육대회 & 야유회

일시 :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장소 : Arsenal Park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참가신청 : 781-933-8822 / 617-750-0207

haninhoebo@gmail.com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톤월 인 사건

1969년 6월 28일 새벽 1시 20분, 일군의 경찰병력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뒷골목의 허름한 바, 스톤월 인 (Stonewall Inn)을 급습했다. 명목상의 이유는 주류판매 허가 없이 알콜을 판매하는 이 업소의 영업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이곳에 있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여장남자) 등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스톤월 인은 매우 작은 규모의 술집으로, 수도 시설조차 마땅치 않아 사용한 술잔을 흐르는 물대신 물통에 고인 물에서 행귀서 다음 손님에게 건넬 정도로 비위생적인 곳이었으며, 화장실도 늘 지저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다른 바에 마음놓고 출입할 수 없는 술한 성소수자들을 받아주는 곳이었으며,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기에 뉴욕의 오갈 데 없는 어리고 가난한 게이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공간이었던 듯 하다. 그날 경찰의 기습 당시 바 안에는 약 200명의 손님들이 있었다고 한다.

불과 반세기 전의 미국에서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탄압에 가까운 차별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동성애는 사회적 위험을 수반하는 정신질환으로 간주되었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직장 해고의 사유가 되었으며,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풍기문란"을 이유로 체포되는 일도 다반사였다.

동성애자들도 사회적 차별에 대해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술집도 이들을 받지 않았다.

스톤월 인이 위치해있던 그리니치빌리지는 1차 대전무렵부터 성소수자들이 상당수 정착하였던 곳으로, "짧은 머리 여자와 긴 머리 남자들의 보금자리"라고 불릴 정도로 고유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 지역의 게이바들은 주로 (이성애자) 마피아들이 운영했는데, 게이바 운영자들은 게이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경찰들은 게이바에서 뇌물을 챙기기 종종 불시 단속에 나서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의 게이바들은 온갖 차별에 노출되어 있던 성소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안식처이자 놀이터였다.

60년대 중반, 뉴욕시가 게이바들의 주류 면허를 취소하거나, 술집에 입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에 걸맞는' 세가지 이상의 아이টে임을 착용해야하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거나 하면서 게이바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경찰의 괴롭힘이 더욱 거세어졌다. 스톤월 인 역시 면허를 취소당해,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했는데, 69년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리니치 빌리지에서조차도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이바가 바로 스톤월 인이었다고 한다.

1969년 6월 28일 새벽에 경찰들이 스톤월 인에 단속을 나온 것 자체는 뭐랄까 전혀 새로운 것도 없이 종종 벌어지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경찰들은 바의 불을 켜게하고 바 안에 있던 손님들을 일렬로 세우거나 화장실로 보내서 신분증을 검사하고, 크로스 드레싱(남장

여자, 여장 남자)을 한 사람들을 가려내고 모욕적인 폭언을 하면서 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동성애에 대한 경찰과 뉴욕시와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놓고 볼때, 그저 또 하룻밤의 단속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장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경찰이 들이닥친 이후 벌어진 혼동의 도가니 속에서 돌연 한 레즈비언이 경찰의 체포에 강력히 저항했다. 곧이어 다른 손님들도 체포에 야유를 보내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내 스톤월 인은 동전과 술병이 날라다니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이 체포한 이들을 호송차에 강제로 밀어넣으려 하자 군중들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스톤월 인 바에 있던 손님들은 200여명 남짓이었으나, 그리니치 빌리지의 주민들 2000여 명이 이 흐름에 합세하면서 한밤중의 시위가 벌어지게되었다.

스톤월 인에서 벌어진 소요사태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불만, 특히 경찰의 일상적 폭력에 대한 반감이 격하게 표출되었던 결과이다. 경찰 폭력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항의 시위는 산발적으로나마 그 후로 며칠 더 이어졌다. 이때 <게이 권력 Gay Power>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스톤월 인 사태 이전에 동성애자들의 권익 운동이 전혀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라는 인상을 풍기지 않고 (한마디로 "튀지 말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호모필(homophile) 운동이었다. 그러나 "게이는 좋은 것이다"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듯, 스톤월 인 사태 이후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고 긍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는 흑인이나 여성 등 60년대의 다른 마이너리티 그룹들의 변혁 운동의 영향도 지대했을 것이다. 커밍아웃이 중요해진 것도 이때다.

그리고 스톤월 인 사태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1970년 6월 28일,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게이 해방 행진(Gay Liberation March)을 조직했다. 게이 행진은 곧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오늘날의 퀴어퍼레이드의 원조인 셈. 그리고보니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헌 판결을 내리고, 백악관이 무지개색 조명을 밝힌 지난 달 6월 28일은 공교롭게도 꼭 반세기 전의 스톤월인 사건이 있던 날이기도 했다.

그냥 사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한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이번 판결이 평등을 향한 진일보라는 시각에 동감한다. 그리고 법적 불평등이 줄어들어 자리에서 더 커진 혐오가 자리하지는 않기를 소망한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부동산 감정과 가격 책정

부동산 감정이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나 의견입니다. 감정할 당시의 감정인의 의견으로 부동산 감정의 가치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감정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세의 매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가치는 대부분 시장 가치로, 현재 팔리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얼마에 내놓을지를 Listing Agent와 Seller분이 먼저 의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Listing Agent는 시장에 내놓을 집의 Profile을 Search한 후 대부분 6개월 이전에 팔린 집들이나 현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한 집 몇 채를 비교 분석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합니다. 그 후 Seller분에게 Presentation을 하게 되지요. Loan의 감

정을 위해서나 Tax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전문 부동산 감정이라고 보다는 현 시장 가치의 적정가격 감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 부동산 감정은 매매계약의 성사와 함께 필요 요구되나, 그도 당시의 시장 가치에 따라 움직이니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물 자체에 큰 결함이 없는 한, 현 시세보다 낮게 나온 매물은 Buyer들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빨리 팔립니다. 높게 나온 매물은 관심 갖는 Buyer들도 드뭅니다. Seller분이 자신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확신으로 높다 싶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시장에 있게 되면, Buyer분들은 무슨 결함이 있어서 오랫동안 안 팔렸나 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생각도 하게 됩니다. Buyer분들은 또한 가격

이 내리기만을 기다리다가 Timing을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자산가치가 큰 부동산 매물 거래는 그만큼 여력이 있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실정을 좀 설명 드리자면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전망으로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셀러마켓입니다. 맞는 가격에 집이 나오면 5%에서 10% 높여 오 퍼를 쓰는 현실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 드리자면 10%를 더 써 넣었는데도 중국 현금 바이어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자율이 1%만 차이가 나도 페이먼트는 확 달라집니다.

이자율이 낮을 때 집을 구입하시

는 건 집을 싸게 사시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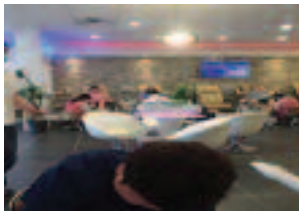
본촌: Allston



돼지꿈: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5%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급매매, 네슈아 뉴햄프셔,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2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8주단위, 8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9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통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 8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6년 이상의 감외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정
 -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3~8.21
(8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